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

vol.34

ZOOM IN

평등과 공정을 말하다

GENDER TALK

청년이 된 아들들아!
청소년은 어떻게 길러지는가
학교다움
나를 사랑하는 일의 어려움

CONTENTS

Zoom-in

평등과 공정을 말하다

02



발행인
대전광역시장

편집
김성곤

발행일
2021년 12월 31일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편집위원
류유선, 권순지, 김순조, 서한나, 이유진

디자인·제작
디자인스튜디오203대전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은
대전광역시와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가
연 2회 함께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Issue&View

'남'에서 '나'로	10
페미니즘 제대로 알자	11
우리가 해야 했던 일	12
모두의 페미니즘을 위하여	13
내 아이가 청출어람하려면 부모가 바뀌어야 한다	14
현실 성평등을 위한 성평등교육의 필요성	15



Gender Talk

청년이 된 아들들아!	16
청소년은 어떻게 길러지는가	17
학교다움	18
나를 사랑하는 일의 어려움	19



문화와 젠더

소녀들은 그럴게 어른이 된다	24
샤를로트의 초상	28
책 리뷰 –〈탈코르셋: 도래한 상상〉	31



Deajeon IS U

일상 속 '평등 더하기'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대전	32
------------------------------	----

이슈 더하기

운동하는 여성들	34
〈구경이〉 여성 서사이면서 동시에 여성만의 서사가 아닌 연대	38

평등과 공정을 말하다

10대의 시선



‘평등’과 ‘공정’이란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엄마, 아빠와 누나, 형, 동생,
선생님, 친구들과의 대화, 행동, 눈빛, 표정에서
드러나는 느낌이나 감정에서 시작된다.
10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들이 생각하는
평등과 공정이 무엇인지 되새겨본다.



#10대 #고등학생 #평등과_공정

류 | 안녕하세요.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류 유선입니다. 우리는 10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늘 궁금해하지만 한편으로 귀담아 듣지 않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10대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편하게 이야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볼까요?

연 | 저는 B고 2학년 연이라고 합니다.

겨울 | A고 2학년 겨울입니다.

진안 | 중앙고등학교 1학년 최진안입니다.

무진 | 중앙고등학교 1학년 김무진입니다.

류 |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참여할 생각을 하셨어요?

연 | 그냥 시험 끝나고 할 게 없기도 했고, 토론하는 걸 좋아해서 흥미가 있었어요.

겨울 | 저는 엄마가 추천해주셨는데 학교에서 동아리 특성상 토론을 많이 하지만 주제가 한정되

어 있어서 새로운 걸 접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진안 | 저는 선생님이 추천해주셔서 왔어요. 제가 수행평가를 영어로 했는데 제일 잘했다고 추천해주셨어요.

류 | 그럼 토론 주제는 무엇으로 알고 오셨어요?

겨울 | 10대가 생각하는 성평등이요.

진안 | 민감한 주제여서 조금 고민했지만 친구가 같이한다고 해서 하기로 했어요.

류 | 뭐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진안 | 주제가 양성평등이라는 것과 추천받은 책도 그런 페미니즘에 관한 책이라서요.

류 | 하하하 맞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면 돼요. 우리는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진안 | 잘못 이야기 했다가 큰일 날까 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류 |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군요. 그래도 친구가 같이 한다고 해서 자신감을 얻고 나오셨군요? 그럼 무진씨는요?

무진 | 저도 선생님께 권유를 받고 처음엔 꺼려지긴 했는데, 생각해보니 의견을 표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류 | 그럼 예상 질문을 보고 어떠셨어요? 우리가 생각한 양성평등과는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들었나요?

무진 | 들었죠. 첫 질문을 보고 내가 생각했던 주제와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질문을 보니까 그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진안 | 저는 질문을 받아보고 그렇게 걱정하던 부분은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겨울 | 생각한 주제와는 조금 다른 질문이어서 살짝 의외였어요. 일상적인 거를 질문하셔서요.

류 | 맞아요. 성평등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 즉 내 가족, 학교에서 늘 있는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평등과 공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0|야기| 1. 가족, 집 안에서

류 | 집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라서, 형이라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곤 하지만 동생에게는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집에서 엄마와 아빠를 각각의 개인으로 봤을 때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차이도 보였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무진 | 저희 부모님은 서로 할말 다하시는 편? 그래서 엄마가 아빠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하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집안일도 평일은 엄마가 다 하시지만 주말에는 아버지가 요리, 청소를 하시는 편이에요.

류 | 주말에 아빠가 집안일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해야 한다? 아니면 주말에는 좀 쉬셔야하는데 무리하시는 것 같다?

무진 | 당연한 거까진 아니지만, 안 하면 엄마한테 일이 몰리게 되니까 평등하게 일은 분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류 | 어떤 집안일을 하세요?

무진 | 청소, 이불 정리랑 주로 저녁 요리하세요. 아침 점심은 미리 해놓은 거 먹는 편이고요.

류 | 그럴 때 무진씨는 뭐해요? 동생이나 형, 누나도 있다면, 무얼 하나요?

무진 | 저는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죠(웃음). 쌍둥이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도 집안일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안 해요.

류 | 무진씨의 경우 집안일은 부모님이 주로 하시고 자녀들은 빠져 있군요. 진안씨는 어때요?

진안 | 예전에 아버지만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안 하실 땐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머니가 일을 하시면서, 아버지가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시는 거 같아요.



류 | 주말에는 어때요?

진안 | 주말에 엄마가 안 계실 땐 아버지가 하시고 주말에 같이 계시면 같이 하세요.

류 | 그럼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진안 | 어머니, 아버지, 저, 남동생이요.

류 | 진안씨는 집안일 좀 해요? 동생은 어때요?

진안 | 두 분 다 일 나가시면 제가 하고, 동생은 안 하죠. 제가 시켜도 안 해요.

류 | 왜 안 할까요?

진안 | 모르겠어요. 저도, 시키면 설거지는 하는 데.. 적극적으로 알아서 하지는 않아요.

류 | 겨울씨는 집에서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어떤 것 같아요? 엄마가 활쏘는 더 집안일도 많이 하고 아빠는 조금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이야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겨울 | 저희 집은 아빠가 가부장적인거 같진 않아요. 엄마랑 싸우는 것도 본 적 없고, 가사 분담도 엄마랑 비슷하게 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아빠가 오빠나 동생이 말하는 것보다 더 잘 들어줘요. 또 오빠도 종종 집안일을 하는 편이라...

류 | 겨울씨는 자발적으로 하는 집안일이 있나요?

특히 본인 담당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어요?

겨울 | 담당이랄 건 없는데 시키지 않아도 빨래는 해요. 빨래를 개고, 건조기 돌리고, 설거지 쌓여 있으면 하고, 청소기도 가끔 돌리고...

류 | 엄마가 혹시 '이것 좀 해!' 이러면서 시킨 적은 없어요?

겨울 | 있는데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류 | 그럼 엄마나 아빠가 남자 형제보다 겨울씨한 테 더 시키는 게 있어요?

겨울 | 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오빠한테 시키는 게 많아요. 오빠가 반수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동생은 아직 어리고, 다 서툴러서... 엄마 집에 안 계실 땐 오빠가 빨래 돌려놓고 밥 차려주고 그래요.

류 | 연이씨는 어때요?

연 | 저는 학교 끝나고 바로 학원 가서 자습하다가 10시나 11시쯤 집에 와서 제 방 청소해요.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으니까 가끔 먹을 때나 치우고, 옷도 제 방에 빨래 바구니가 따로 있는데 그거 쌓이면 하는 편이고요.

류 | 집안일의 대부분은 누가 하는 편이예요?

연 | 아빠는 아침에 출근하셔서 저녁 7시에 오시고, 엄마는 3시부터 나가셔서요. 그래서 3시까지 엄마가 하고 저녁에는 아빠가 퇴근하시니까 아빠가 하는 거 같아요.

류 |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부모님께 혼난 적이 있어요? 최근 한 달 내에요.

무진 | 최근에 학교 버스 시간을 늦어서 놓쳤어요. 다음부턴 안 늦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또 그래서... 혼이 났죠.

류 | 그거 밖에 없는 거예요? 늦잠 잔 거? 다른 친구들은 있나요?

진안 | 저는 방 치우라고 혼난 적 있어요.

연 | 저는 예전에는 학원 끝나고 버스 타고 왔었어요. 요즘에는 걱정된다고 엄마가 데리러 오시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데리러 오지 못한 적이 있거든요.. 그 때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버스 타고 간다고 했다가 한 30분 늦게 들어가서 혼난 적 있어요.

겨울 | 저도 약간 비슷한 데, 통금이 12시여서 딴



짓을 하다가 살짝 늦어가지고 그럴 때 전화를 하면 그냥 빨리 오라고 하시고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요즘 빈도수가 많아져서 늦지 말고 빨리 오라고 주의를 주셨어요.

류 | 음. 확실히 다르네요. 여자 친구들은 안전이 걱정되서 밤 시간에 늦게 오는 것 때문에 주로 혼나고, 남자 친구들은 청소나 지각 같은 것 때문에 혼난다는 것이요. 이런 거 보면 뭔가 느껴지지 않아요? 남자 친구들은 집에 몇 시에 들어가요?

무진 | 저는 늦을 때는 새벽 2시에 들어간 적도 있어요.

류 | 새벽? 부모님이 뭐라 안 하세요? 뭐하다가요?

무진 | 놀다가요. 다 주무시고 계셔서 혼나진 않았어요.

류 | 남자 친구들은 늦게 가도 걱정을 안하는구나. 진안씨는요?

진안 | 빠르면 11시, 늦으면 12시 반 정도?

류 | 늦게 들어가면 걱정은 안 하세요?

진안 | 워 학원 갔다오는 거라 걱정은 안 하세요.

류 | 이건 차별은 아니지만 걱정의 포인트가 좀 다르죠? 여자 친구들에게는 우리 사회가 조금은 안전하지 않으니까 30분 늦는 것에도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남자 친구들에게는 늦게 와도 큰 걱정을 하지 않는데, 이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진 | 부모님은 제가 밖에서 사고 안 칠 거라고 믿고 계신 것 같아요.

진안 | 저도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류 | 다들 나쁜 일은 안 저지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여자 친구들에게는 밤이 늦어서 걱정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 사회가 남자보다 여자에게 불안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세요?

무진 | 동의 못하죠. 다 똑같은 사람인데 우열을 가린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류 | 그럼 왜 부모님은 여자들을 더 걱정할까요?

무진 | 부모님은 살짝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류 | 아.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무진씨 여동생이 새벽 2시에 오면 주무실까요?

무진 | 안 주무실 거 같아요

류 | 왜 그런 거 같아요? 여동생은 보통 몇 시에 와요?

무진 | 여동생은 늦어도 6시? 그냥 그렇게 와요. 본인도 늦게 들어오면 불안하기도 하고 부모님도 걱정하실까 봐 그때 온대요.

류 | 무진씨는 새벽 2시에 와도 걱정 안 하고 주무시는데 여동생은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일찍 오는 건 왜 그럴까요?

무진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이 약간 고정관념이 있으신 거 같아요.

류 | 여기서 부모님의 고정관념은 뭘까요? 여자는 일찍 와야 한다?

무진 | 네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어릴 때 일찍 안 오면 혼났다고 그러니까요.

류 | 무진씨가 생각할 때 옛날에 엄마가 늦게 들어가면 왜 혼나셨을 거 같아요?

무진 |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성차별이 심했던 시기니까요.

류 | 그런데 저는 이걸 성차별로 봐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이 여자를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요.

무진 | 그렇죠. 아무래도 옛날에는 여성의 체력이 약하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던 거 같아요.

류 | 체력이 약하다는 건 집에 걸어오다가 쓰러질까 봐 그런거예요? 아니면 밤에 좀 늦게 오면 위험들이 있을까 봐 그런 걸까요?

무진 | 네 그런 거죠. 위험.

류 | 그럼 위험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무진씨가 생각할 때 밤에 늦으면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요?

무진, 진안 | (...)

류 | 여자 친구들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여자들은 늦늦게 오면 걱정을 하시잖아요. 남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럴까요?

겨울 | 저희 부모님도 원래는 1시, 2시에 들어와도 별로 걱정 안 하셨는데 그 빈도수가 많아지니까 제약을 걸어놓으시는 거지. 저의 오빠도 12시까지 들어오라고 하시거든요. 아마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여성이 남성보다 힘으로 밀리는 것은 당연하고 옛날에는 납치나 폭력 사건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닐까 싶어요.

류 | 여자들이 늦늦게 다니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자들 체력이 약한 건 당연하다고 했잖아요. 힘이 약한 거죠? 여기서 힘은 왜 필요한 걸까요?

겨울 | 저를 지키려고요. 만약에 길을 가다가 납치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남성이 몸부림치는 거랑 여성이 몸부림치는 거랑 힘의 차이가 있죠.

류 | 그러면 늦늦게 10대 여학생이 혼자 걸어가는 것과 남학생이 걷는 것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연 | 저는 별로 걱정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걱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서 나왔겠거니 생각할 거 같아요.

진안 | 저도 둘 다 걱정은 별로 안 될 거 같아요. 요즘엔 여자애들이 남자애들보다 밤에 무리로 다니는 것 같아요. 저 혼자일 때 여자애들이 무리로 다가오면 조금 무섭더라고요.

류 | 10대들은 늦은 밤에 남녀 구분 없이 혼자 다녀도 별로 걱정이 안 된다. 그렇군요.

『이건 차별이야 : 우리 집의 귀가시간』
"남자는 괜찮아. 그런데 여자는 위험해"

0|야기| 2. 학교에서

류 | 그럼 이제 학교 얘기를 해볼게요. 학생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각자의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인격적으로, 언어적으로, 혹은 성적이나 성별에 따라 차별하는 것에 대해 경험 한 적 있나요?

겨울 | 저희 학교는 과학 중점화 학교여서 이과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문과랑 이과랑 대우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프린트물을 풀어온 거를 확인할 때도 이과는 한명 한명 다 확인해주 시면서 문과는 프린트 문제를 거의 안하거든요. 그리고 문과 동아리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동아리 지원자도 많이 비교돼요.

연 | 저희 반 한 학생의 1학년때, 담임을 맡으셨던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오시면 그 친구에게만 유독 관심을 보이셔서 그게 조금 불평등한 것 같아요.

진안 | 저는 성적이 좋은 학생이 행사 부스를 꾸미려 가면 개는 쉽게 허락해 주시고,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은 보내시길 하는데 '성적이 되어야 행사 를 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라면서 원가 한 소리 덧붙이는 경우를 봤어요.

무진 |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성적에 따라서 수학이랑 영어반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게 불공평한 것 같아요. 아예 교재 자체가 달라요.

류 | 명확하게 차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학생들 본인은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것이죠? 학교에서는 분명히 능력에 따라 하는 거라고 하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내세우는 능력주의라는 것 이 무엇인가? 공정이라는 것에 대해 고민할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무진씨가 보기에는 차별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럼 평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진 | 수준별 반을 나누지 않고 같은 교재로 같이 가르쳐야죠.

진안 | 성적이 나빠도 다른 것에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가능성은 다 다르니까요.

류 | 남고에서는 성적을 가지고 대하는 태도가 조금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남녀 공학인 학교에서는

어떤가요?

연 | 저는 못 느꼈어요.

겨울 | 저는 살짝 미묘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선생님들도 거의 차별을 안하시기는 하는데 이과가 많다 보니 이과가 대회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과에 신경을 더 쓰는 거 같아요.

류 | 그렇다면 문과 학생들 대부분은 성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문과 학생들이 문제 제기 안 했어요?

겨울 | 어쩔 수가 없죠. 빵빵이로 온 거라서요. 학교 자체가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를 원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학교 분위기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냥 살아남아야죠. 하하하

류 | 중앙고도 이과 중심의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진안 | 저희도 이과를 좀 더 쟁기는 것 같아요. 저희 주변 학교는 다 그런 거 같아요.

류 | 이과를 뽑는 대학이 많고 이과 학생들이 좋

은 대학을 많이 가니까 선생님들이 좀 더 지원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진안 | 민감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문과를 수학을 포기해서 온 애들이라고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지금 형들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학습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과가 좋아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라고 보는 편견이 있어요.

류 | 그러면 이제는 각자 개인의 경험을 물어볼게요. 미묘하지만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런 적이 있어요?

연 | 제 경우는 아닌데.. 친구가 음악시간에 생리통이 심해서 보온팩을 안고 왔는데 그거 보고 선생님이 임신했냐고 그랬었어요. 그 사람이 남자인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아차 싶었는지 자기도 임신 3주차라고 그랬대요. 그 이야기가 애들 사이에서

『이건 차별이야 : 똑같은 학생 아닌가요?』
 "이과만 신경써주는"
 "수포자들은 문과로"
 "영어랑 수학만은 성적따라"
 "성적이 좋아야 인정한"
 "급식은 남자만 먼저"





돌다가 결국 다른 선생님들까지 알게 되어서 성희
롱 조사도 하고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겨울 | 저는 듣거나 느껴본 적은 없는 거 같고, 급
식 먹는 반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남자들이 먼저
먹게 되는 건 있어요.

무진 | 저는 차별보다는 복장 불량으로 벌점을 받
은 적이 몇 번 있어요. 셔츠랑 조끼를 입고 위에
자켓을 입고 외투를 입어야 하는데 조끼만 입어
서 벌점을 받았어요.

류 | 그런 건 불평등 문제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편
하려고 교복을 입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관여를 해
서 벌점을 부과한다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무진 | 아무래도 그게 벌점을 주기 쉬워서 그런 거
같기도 해요. 말도 안되죠.

진안 | 저희 학교는 이거를 점심시간에도 검사해
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더 세게, 강압
적으로 교칙을 적용하는 것 같아요.

연 | 저희는 교복을 대충 교복이라고 보일 정도만

입고 교문만 통과하면 이후에는 큰 제약이 없어
요. 저희 학교가 프리한 편이긴 해요.

겨울 | 저희 학교는 중앙고랑 비슷한데 꼭 자켓을
입어야 하고, 학교 들어가면 체육복으로 갈아입
고 돌아다닐 수 있는 한데 체육복 등교는 3학
년만 가능하거든요. 3학년은 수능보니까 편하게
다니게 해준다고 3학년은 과티도 만들어서 입고
다닐 수 있게 해주지만 저희는 무조건 교복 입고
자켓 입고 그 위에 외투를 입어야 해요.

류 | 그렇군요. 차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학
교만의 교칙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학교
에서 평등이나 공정, 성평등에 대해 배운 적이
있어요?

무진 | 사회시간에 배운 적은 있어요.

류 | 어떻게 가르쳐줘요?

무진 |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외노자(외국인 노
동자) 차별하는 것에 대해 보여주고 어떻게 해결
해야 하는지 같은 것들을 배웠어요.

류유선 | 혹시 성평등, 남녀차별에 대한 내용은

들어본 적 없어요?

무진 | 성평등은 거의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진안 | 가끔 외부 강사를 통해 교육을 받긴 하거
든요. 그런데 그렇게 관심 있게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류 | 왜 관심이 없어요?

진안 | 재미가 없어요.

무진 | 솔직히 교육 오시면 ppt만 띄워놓고 그것
만 읽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요.

연 | 저희 학교는 월요일마다 영상을 틀어주긴 하
는데 애들은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겨울 | 저희도 교육시간은 있는데 그때 다들 다른
거 하느라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류 | 다들 평등, 정의, 공정, 성평등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은 있기는 한데 다들 관심은 없다는 거네요.
이게 학생들에게 큰 문제가 아니라서 관심이 없
는 건가요?

연 |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니까요.



0|야기|3. 집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류 | 그럼 이제 사회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먼저 집에서는 공정과 평등이 필요할까요?

무진 | 필요하죠. 아까 말했듯이 역할 분담이 잘 되어야 하고.

류 | 어떤 역할 분담요?

무진 | 가족이 하는 모든 일이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 누구 하나만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과로 도출해 내야 하니까 평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류 | 너무 이과적인 표현 아니에요? (웃음) 그럼 여기서 가족 간의 공정과 평등이라는 것에는 가사 노동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진 | 가족이 하는 모든 일에 평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거죠.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 모든 측면에 서요.

진안 |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가사 노동으로 인해서 못하는 것은 아닌 거 같아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공정과 평등이라고 생각해요.

류 | 그런데 예를 들어 자녀들 가운데 공부를 조금 더 잘하는 경우에 지원을 더 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공정과 평등에서 어긋나는 것인가요?

무진 | 저희 집이 살짝 그렇긴 한데, 제 동생이 저보다 살짝 더 공부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부모님이 저한테 동생한테 공부 좀 배워라~ 그런 말 하실 때마다 자존심이 좀 상하긴 해요. 동생이 3분 차이긴 하지만요(웃음).

진안 | 저는 기회는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너무 형식적으로 평등한 것보다는 실질적인 평등이 더 필요한 거 같아요.

류 | 그럼 가족 간에 실질적인 평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식 2명을 키워야 하는데 효율성의 차원에서 보면 잘하는 자식한테 더 많이 투자를 해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똑같이 나눠주는 게 좋을까요? 예전

『우리가 바라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공정과 평등이라고 생각해요

고정적으로 남자들이 먼저 밥을 먹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순서를 바꿔가며 먹어야겠죠

분명한 건 모두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죠

에는 아들에게 투자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정 내의 성차별이 있었던 건데, 지금은 아들딸의 구분은 없지만 조금 더 잘하는 자식을 밀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평등이 많이 어려운 것인데 어때요?

겨울 |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학원을 많이 다니는데 만약에 동생도 보내 달라고 하면 둘 다 보내주세요. 그런데 기회는 똑같이 주되 누군가 한 명이 학원을 제대로 안 다니면 그만두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류 | 다들 가족 안에서도 공정과 평등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가족 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다들 아마 느낄 거예요. 구체적으로 언어화하기 힘들 뿐이지 가족 간에도 분명히 공정과 평등이 필요한 차별의 순간이 있다라고 느끼고 있

는 거죠.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죠. 그럼 학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학교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공정과 평등이 있으면 좋겠어요?

진안 | 저는 학년에 따른 우선순위요. 무엇을 하든 3학년이 우선인 점이 불편해요. 3학년이 조금 더 우대받는 것은 인정하지만 형들 때문에 운동장을 사용 못하는 것이라던지 학년마다 할 수 있는 동아리가 정해져 있는 거, 급식 순번이 정해져 있어서 점심시간이 20분밖에 안되는 거요. 저희 뒤에는 중학생들도 먹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류 | 미묘하네요. 학년별 급식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을 차별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럼 아까 겨울 씨의 학교에서 남자들부터 밥 먹는 것에 대해서는 차별로 느껴져요?

진안 | 항상 남자들부터 먹는 거죠? 돌아가면서 먹는게 아니라? 그건 차별인 것 같아요.

겨울 | 저희는 3학년 남자, 여자 2학년 남자, 여자 순서대로 먹어요. 앞반이 남자반이라서.

류 | 이런 것이 늘 굳어져 있으면 차별인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회로 나가면 더 그러거든요.

류 | 그럼 마지막 질문이에요. 남자와 여자 간에도 공정과 평등이 필요할까요? 너무 당연한것이기도 한데요. 밥 먹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계속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무진 | 고정적으로 남자들이 먼저 밥을 먹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순서를 바꿔가며 먹어야겠죠.

연 | 저희 학교는 학년별로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빨리 먹고 빠져야해요. 남자와 여자 배

정식이 반별로 따로 있기도 하고요.

겨울 | 반 배정이 남자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앞반부터 먹는 거라 큰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3학년부터 먹는 거는 저희도 어차피 3학년이 되면 똑같이 할 수 있어서 딱히 차별이라고 생각 안해요. 만약에 여자반이 1반이었으면 여자가 먼저 먹었을 거 같아요.

류 | 옛날부터 앞반에 남자반을 해놓은 게 문제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겨울 |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놓은 거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아요.

류 | 여러분에게 성평등이라는 것은 중요한가요? 종교가 다르다고, 장애가 있다고 해서 다르게 대우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내가 남자라서 여자라서 차별을 받는 것도 안 되잖아요.

무진 | 성평등 해야죠. 사회시간에 유리천장에 대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평등이 이뤄져야 여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진안 | 통계상으로 보면 약자는 맞는 것 같은데 제 주위에는 그렇게 차별을 당하는 여성은 못봤어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라고 하지만 중학교 때도 여자, 남자 선생님이 반반이었고 교장 선생님도 여성인 분도 있었고요. 사회에서 점점 가부장적인 문화나 남성중심적 문화를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류 | 사실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나 뉴스를 보고 여성이 약자라고 느끼는 것이지 현실 속 내 주변에서는 못 느낀다는 말씀이군요?

겨울 | 저는 따로 여자라고 차별받아 본 적이 없어서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학생이라서 더 그렇지 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회에 차별이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바뀌어야겠죠. 한번에 바뀌는 건 어렵지만 요즘 행동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연 | 저도 아직 그렇게 많은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딱히 차별받는다는 것은 못 느꼈어요.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류 | 오늘 대전의 10대 남성과 여성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간고사 이후라서 쉬고 싶고, 주제도 부담스러웠을 텐데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족, 학교, 지역사회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평등과 정의라는 가치를 가족들과의 관계,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관계, 위치에서나 불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함께 고민하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용기를 내지 않아도 그런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에서 ‘나’로

오라오라(고등학생)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던 민주주의의 역사 중 ‘여성권리운동’을 접했던 기억이 난다. 교과서에서는 고작 한 두 줄 쓰여 있었고, 맨 끝에 작은 사진에는 ‘Vote for woman’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는 백인 여성의 있었다. 교과서에서 나온 여성운동의 시기는 근대 민주주의의 혁명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고대에 있었던 최초의 민주주의에서도, 다양한 시민혁명으로 이루어진 근대 민주주의의 불리우는 부분에서도 여성은 항상 뒷전이었고, 여성의 자발적인 권리청구는 일반적인 남성의 권리를 대부분 찾고 난 이후에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나의 페미니즘에 대한 흥미와 현대 사회에서 페미니즘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의구심은 교과서 속 혁명의 역사에서 시작되었다. 여성 대상 성희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가 옷을 야하게 입어서 그런 건 아닌가? 남자를 자극한 건 사실이잖아.”라고 했던 여자 선생님의 발언이 생각이 난다. 당시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던 것이다. 그 수업이 끝나고 다른 친구들이 하나, 둘 잘못된 발언이라고 짚으니 그제서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정도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다. 친구들 중 한 명은 “범죄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넘기고 그 피해자가 또 하필 여자네. 여자는 남자를 자극하는 존재이고 남자는 그 자극을 받고 범죄를 일으켜도 아무렇지 않다는 건가?”라는 말을 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거기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니 당시 선생님의 발언 같은 가부장적 가치관이 옳지 않다고 확실히 말하려면 내가 먼저 양성평등과 페미니즘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일상 속 혹은 의식하지 못하는 나의 행동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가부장적 고정관념에 둘러쌓인 요소들이 있지는 않은지 되짚어보았다. 이 중 내 일상을 가장 많이 변화시킨 것은 ‘다이어트’였다. 나는 정상 체중이고, 지금까지 계속 정상 체중이었으나 항상 ‘뚱뚱하고 남들 보기 예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한 달에서 두 달 간격으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반복해왔다. 몸은 망가져도 남에게 예뻐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페미니즘에 대해 알게 되고 나의 생각을 하나하나 바꾸고 보니 나는 어느새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있었고, 스트레스 속에서 절식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

었다. ‘예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다.

페미니즘에 대해 알기 전 나는 자존감이 매우 낮아서 거울도 잘 보지 않았지만 페미니즘을 알고 난 이후 자존감은 물론이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갔다. 나 자신을 들여다 볼 줄 아는 사람이 된 것 같다. 또 한가지 변화는 바로 ‘화장’이다. 나는 중학교 때부터 화장을 했다. 남녀공학이지만 남녀 분반인 중학교에 다녔는데 당시에 반 친구들 대부분이 점심시간이 되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화장을 하고 급식실로 갔다.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쓴 것도 아니었고, 나에게 크게 잘 어울리는 화장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모두들 하니까 안하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매일 피부가 뒤집어져도 화장을 두껍게 쌓았다. 화장을 잘 하지 않는 지금도 그 때 뒤집어진 피부에 났던 염증의 흉터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남들이 요구하는 만큼 예쁘지 않아도 나는 나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으니 자연스레 화장이 점점 열어졌다. 그리고 남들이 원하는 아름다움이 아니어도 내가 만족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꾸미기 시작했다. 유행하는 짧은 치마나 반바지 대신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편한 바지를 샀고, 다들 예쁘다며 바르는 빨간 립스틱 대신 입술이 편하고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는 투명한 립밤을 발랐다. 거울 속 나는 어울리지 않게 치장했을 때에 비하면 너무 행복해보였다.

페미니즘은 내 시선의 중심을 ‘남’에서 ‘나’로 바꿔주었다. [W](#)

남들이 요구하는 만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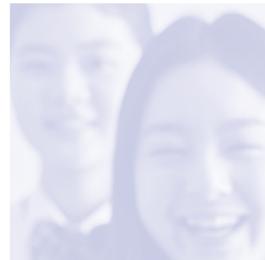
예쁘지 않아도 나는 나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으니
자연스레 화장이 점점 열어졌다.
그리고 남들이 원하는
아름다움이 아니어도
내가 만족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꾸미기 시작했다.



페미니즘 제대로 알자

손승우 (대신고등학교)

청소년기에 주입된 사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위에서 말한 여성주의와 페미니즘이뿐만 아닌 정치적, 경제적 사상 모두를 아우르는 말이다. 부디 진실에 입각한 교육과 학생들의 선택을 통한 교육을 진행하여 페미니즘과 여성주의에 대한 극단적인 생각을 갖는 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



최근 학교를 거닐며 친구들에게 여성주의, 페미니즘에 대해 물어보면, 대개는 부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소수지만 극단적으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며 아예 말하기를 꺼려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적개심이었다. 분노도 아니고 적대심도 아닌, 적개심이란 대체 뭘까? 적개심의 사전적 정의는 적과 싸우고자 하는 마음, 또는 적에 대하여 느끼는 분노와 증오이다. 대체 친구들은 어떤 곳에서 적개심을 느꼈을까? 그 원인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로는 극단적인 성향의 SNS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진실에서 와전된 교육이 있었다.

먼저 극단적인 성향의 SNS이다. 청소년이 가장 빈번히 접하는 매체라고 하면 첫째는 언제나 SNS일 것이다. SNS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고 빠른 정보전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그만큼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정보도 쉽게 전달되어 가감없이 받아들여지기 쉽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청소년들은 여성주의와 페미니즘을 거짓된 정보로 판단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정보를 통해 여성주의와 페

미니즘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학생이 많을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여기는 학생들이 많을까? 라고 묻는다면 정답은 부정적인 학생일 것이다. 현재 여성주의와 페미니즘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대부분이고, 언론에서도 극단적인 표현을 악용하면서 청소년들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주의와 페미니즘은 절대 틀린 것이 아니다. 성 불평등에 대한 계몽사상에서 비롯된 페미니즘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사회변화의 기초를 쌓는데 기여한 학문이다. 하지만 최근 여러 단체와 정치계에서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며 부정적인 여론이 양산되었고 결과적으로 적개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진실에서 와전된 교육이다. 지난 5월 하나의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기되었다. 이 주장은 교사 단체가 웹사이트를 통해 조직적으로 잘못된 페미니즘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해당 웹사이트 게시글에는 '교사는 아이들 심리를 이용해 생각을 바꾸고, 아이들의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모가 있

어도 관심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페미니즘 교육의 대상으로 삼으라'라는 내용의 글이 있었다. 이처럼 나도 여성주의에 대한 잘못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육에 납득할 수 없었고 정확한 인과관계 및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성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느끼고 극단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와 몇몇 친구들은 달랐다. 아무리 잘못된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성주의 전체를 부정적인 학문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여성주의 교육을 위한 동아리를 구성하게 되었고, 여성주의 교육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정확히 구분하여 사실에 입각한 주장만을 받아들이기 위한 동아리 활동을 했다.

청소년기에 주입된 사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위에서 말한 여성주의와 페미니즘이만 아닌 정치적, 경제적 사상 모두를 아우르는 말이다. 부디 진실에 입각한 교육과 학생들의 선택을 통한 교육을 진행하여 페미니즘과 여성주의에 대한 극단적인 생각을 갖는 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 ⓧ

몇 년 전 처음으로 남자 반 담임을 맡았다. 장난으로 '로리타 덕후', '성희롱 가해자', '김치녀'란 말을 뱉거나, 화가 난다고 재내(여학생) 언제든지 때릴 수 있다고 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다수. 적고 나니 참 끔찍하다.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참 힘들었겠네.'하고 나를 안쓰럽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해는 참 즐거웠다. 틈만 나면 교무실에 찾아와 어리광을 부리거나, 멀리서도 나를 발견하면 큰 소리로 부르며 반가워하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담임이란 이유로 낯선 어른을 믿고 따르는 아이들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을까? 여기서 내 딜레마가 시작됐다.

여학생 반만 맡아 왔을 때, '남학생들은 왜 저 렐까?' 생각하기는 참 쉬웠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는 남학생들은 단순하게 미워하기엔 너무 귀여웠고 마냥 귀여워하기엔 너무 나빴다. 쉽게 말해, 복잡하고 모순적이었다. 소심한 친구를 함부로 대하는 친구들을 제지하며 분위기를 훈기시킨 학생이 '김치'란 말을 쓰며 깊길대고,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폭력성을 보이던 학생이 장애 학생의 통합학급 적응을 가장 적극적으로 돋기도 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남성적인' 학생에게는 '너무도 남성적인'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남자답고' 싶어서 애쓰는 학생은 오히려 가장 '여성적인' 면을 갖고 있다는 것과 오히려 '남자답지 못함'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자신의 섬세한 감수성을 혐오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너무 쉽게 미워해 왔던 학생들을 쉽게 미워할 수 없었다. 물론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건 나이와 직위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권력 차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슷한 나이에 같은 학생인 '여성'에게 "봐, 남자애들도 나쁘지만은 않아"라고 이야기하며 문제를 희석하려는 건 아니다. 다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는 결코 여학생들만으로 만들어지진 않는다는 것이다.

남학생에겐 교육이 필요하다. 나쁘지 않을 수 있는, '남자답지 못한' 자신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숨 쉬듯 벌어지는 사회의 부조리와 폭력에 함께 분노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물론 이는 젠더와 나이의 교차로에서 사소하고 치명적인 억압에 맞서며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는 또래 여학생들의 뜻이 아니다. 더 살았고, 더 벌고, 더 큰 목소리를 가진 교사를 비롯한 어른의 뜻이다. '악마 같은 10대 한남들'이라고 지칭하면 뭐가 남을까. 결국 악마와 섞여 살아야 하는 여학생들이 남을 뿐이다. 좋은 어른으로서의 본보기가, 소수를 억압하거나 정체성을 억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누구든 누구에게 폭력을 저지를 수 없다는 당연한 정의가 당연해지는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

그럼 여학생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고? 너무 쉽다. 여학생다움을 강요하는 이중 잣대 들이 대지 않기, 동료 교사의 성차별적인 발언과 행동을 묵과하지 않기, 보육과 돌봄에 치우친 진로 희망뿐 아니라 자신만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기, 머리가 짧고 화장을 하지 않은 여성 어른이 있음을 보여주기, 그리고 무엇보다 포스트잇으로 벽을 도배하고, 창문에 전지를 붙이고, 인터넷과 언론사에 자신이 당한 일을 고발하지 않더라도, '미투'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몇 달 전 우리 반 여학생이 찾아와 남학생들끼리 나누는 성적인 농담을 듣고 찝찝했고 불쾌했다는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이런 말을 선생님에게 할 수 있어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담임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한참 동안 찝찝함이 남았다. 그 학생의 자리 배정을 바꾸고, 비슷한 일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만으로 전부일까? 소화되지 않은 감정은? 그 남학생들을 그냥 '그런 애들'로 내버려 두고 있었다는 자책감이었다. 우리는 무언가를 했어야 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학생들을 위해서. ☺

우리가 해야 했던 일

안소리(교사)



좋은 어른으로서의
본보기가, 소수를
억압하거나 정체성을
억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누구든 누구에게
폭력을 저지를 수 없다는
당연한 정의가 당연해지는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



모두의 페미니즘을 위하여

김윤경(대전여민회 성평등강사)

우리 사회의
모든 청소년들이
여자다움, 남자다움에
얽매이지 않고
나를 사랑하며,
나다운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지켜줘야 한다.
이것은 기성세대의
권리가 아니고 의무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서로 소통한다. 그것이 청소년들의 소통 방법이고 하나의 문화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은 일방적이고 편향된 정보로 인해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될 확률도 높아지게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남녀갈등과 이로 인한 이성혐오가 그 결과 중의 하나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잘못되고 왜곡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 양 받아들이고 강사를 공격하거나 여성혐오 혹은 남성혐오 의식이 강한 청소년을 종종 마주칠 수 있다. 성평등 교육을 마치 여성만을 위한 것이며, 남성을 차별하는 교육으로 잘못 이해하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성평등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성평등 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성별에 근거하여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관점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를 배우는 것이다. 결코 일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여성만 좋은 교육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교육이며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평등하게 잘 살아보자는 것이다.

잘못된 성인식은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된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차별을 야기하고 결국 사회적 불평등을 가져온다. 성평등 교육은 성

역할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생활 속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찾아보고 여자다움, 남자다움에서 벗어나 나다운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돋고 있다. 조금 더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이 아닌 함께 생각해보고 토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공감하며 그동안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어 좋았다고도 하고, 예전에는 안 보이던 성역할 고정관념이 교육을 통해 보이게 되었다고 신기해 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가 자주 접하는 동요, 동화, 가요,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다양한 미디어 속에 숨어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찾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같이 토론하고 공감해 가며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나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성평등 교육을 하는 이유이다.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존중하는 교육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체득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교육으로는 부족함을 느낀다. 일상 속에서, 교육과정 속에서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모든 청소년들이 여자다움, 남자다움에 얹매이지 않고 나를 사랑하며, 나다운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지켜줘야 한다. 이것은 기성세대의 권리가 아니고 의무다. ☺

내 아이가 청출어람 靑出於藍 하려면 부모가 바뀌어야 한다

옹골찬



난 주저없이 요리사를
하겠다고 했다.
그때 동네 어머니들께서
나에게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면 고추가 떨어져서
여자가 된다고 겁을 주고,
남자라면 대통령, 장군,
판사 등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때 이후로 내 꿈에서
요리사는 없어졌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만난다. 60~70대 할머니 중에 가정폭력에 노
출되어 계신 분들도 있다. 한참 동안 상담해보면
가족이 말리고, 경찰에 신고해도 도로 그 모양이
라고 한탄을 하신다. 그러면서도 남자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 지금의 성평등 교육
은 잘못된 것이라고 청원을 넣기 위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신다는 매 맞는 할머니에게 나는 무엇
이 잘못되었는지, 왜 바뀌어야 하는지 설명할 수
가 없었다. 여성이라고 안되는 것이 아니고 남성
이라고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여성은 때
려도 된다는 것은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너무
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기에 맞지만 말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었다. 잘못된 것은 알지만 내
가 나서서 바꾸고 싶지는 않았는지도 모른다.

나의 세상은 늘 남성과 여성은 나누고 남성
이 하는 일과 여성이 하는 일을 구분해주었다.
내가 4살 때 할머니 환갑잔치가 있었다. 그 상
에 펼쳐진 알록달록하고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
지는 과정을 보면서 나는 요리사를 해서 예쁘
고 맛있는 음식을 해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설거지를 하는 어머니들이 꿈이 뭐냐고 물어보
셨을 때에도, 난 주저없이 요리사를 하겠다고 했
다. 그때 동네 어머니들께서 나에게 남자가 부엌
에 들어오면 고추가 떨어져서 여자가 된다고 겁
을 주고 남자라면 대통령, 장군, 판사 등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때 이후로 내 꿈에서 요리
사는 없어졌다. 좀 더 시간이 흘러 TV에서 유명
호텔이나 식당의 요리사로 남자가 등장하기 시
작했다. 그들을 그냥 요리사가 아니라 쉐프라고
불렀다. 어느 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쉐프에 대
해 이야기하며 고급 호텔 주방장이 남성들인 이
유가 여성은 생리로 인해서 체온이 변하고 그 때
마다 요리한 음식 맛이 변하기 때문에 고급 요리
를 못한다고 이야기들을 했다. 물론 이러한 얘기
가 과학적이지 못한 편견이라는 것을 알지만 내
어릴 적 친구들이나 다른 남자들을 만나면 비슷
한 대화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

나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행동하
고, 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아들에게 지적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나
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당
연히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데, 어느 날 아이의 눈으로 지적을 받게 되는 것이
다. 아이의 지적을 받을 때마다 속으로 '내가 왜?'
라는 생각이 듈다. 억울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
랬나 의문이 들었고 혼란스러웠다. 물론 혼을 낼
수도 없었다. 나처럼 같은 시대에 교육을 받고 자
라온 부모들은 모두 당황스러운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부모는 자녀들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그래서 성차별과 성평등에 대한 부모와
그 이전 세대의 인식을 전환하는 교육이 꼭 필요
하다. 가정에서 매 맞는 할머니나 여성에게 무엇
인가 매 맞을 원인을 제공했으니 맞는 것이 당연
하다고 말하거나, 성평등 교육이 동성애를 조장
한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등의 헐난을 멈추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우리와
같은 과거에 머물게 되고 혼란해 할 것이다. 반대
로 성평등 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부모들
은 아이의 생각과 가치관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
지해줄 수 있고, 아이는 더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
게 될 것이다. 지금의 아이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학부모인 우리부터 바뀌어야 한다. ⑩



학교에서 충분히 성평등교육을 받았고 당연히 그럴 것이라 생각했던 사회에서 그렇지 않음을 경험하며 우리 자녀들이 겪을 좌절감이 더 이상 사회문제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

현실 성평등을 위한 성평등교육의 필요성

꿈지키미

얼마 전 모 TV프로그램에서 대기업 임원을 하다 퇴직한 최인아 대표가 나온 부분을 남편과 함께 시청한 적이 있다. '참 대단한 분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보던 중에 대화의 한 부분이 인상 깊게 다가왔다. "여자와 남자는 같다"라고 배웠는데 막상 사회에 나와 보니 월급도 차이가 났고 진급도 똑같게 안 해주더라. 학교에서는 '같다'라는 이야기가 '같아야 한다'라는 당위였다. '현실과 당위는 같지 않구나' 이런 걸 하루하루 익혀갔다"라는 말이었다. 지금은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매체에 나와 지난 히스토리를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차별과 불평등한 상황에서 도전을 하고 좌절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니, 새삼 현재의 내게 주어진 환경은 좋은 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의 경우는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곳이라 성차별을 거의 겪지 않았고 성평등문제 또한 민감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평등교육에 대한 생각을 써보기로 한 후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 왜냐하면 나 또한 학교에서 당연한 참인 명제로 아이들에게 '남자와 여자는 같다'라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 남편과 생각을 나눠보고, 거기에 더해 앞으로 사회인이 될 딸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았다.

우선 사회적, 경제적 성평등이 이루어져한다는 생각이다. 훌한 딸바보인 남편은 우리 딸들이 전문직을 갖기를 바라고 있다. 이유는 그 직업들이 수직관계에서 오는 불평등을 겪지 않을 수 있고, 이후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댓가와 만족감이 주어진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도 차별까지는 아니어도 불평등한 조직 사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기업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이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의 창구가 마련되어 서로의 차이를 직시하고 포용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나 등등하게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또한 안전상의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뉴스로 듣게 되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데이터폭력등에서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의 회복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제도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위험에 노출되어지는 안전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솔루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함과 동시에 사회 전반적인 성인지교육이 꾸준히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충분히 성평등교육을 받았고 당연히 그럴 것이라 생각했던 사회에서 그렇지 않음을 경험하며 우리 자녀들이 겪을 좌절감이 더 이상 사회문제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사회 선배인 부모세대가 지금까지는 성불평등을 간과하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쳐 왔다면, 앞으로는 역지사지(易地思之)란 말처럼 그 상황의 대상이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것이 우리 부모세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으로 내 자녀가 속할 사회가 당위로서가 아닌 현실로 성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성평등교육을 받아야 이유가 아닌가 싶다. ☺



청년이 된 아들들아!

김순조_『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편집위원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신혼생활을 시작한 G동의 자그마한 임대 아파트 단지에는 내 나이 또래의 젊은 주부가 많이 살고 있었다. 그녀도 그중의 하나였다. 우연히 그녀가 내 친구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한 층 아래에 사는 그녀의 집에 자주 놀러 가게 되었다. 친구는 그녀가 대학 다닐 때 운동권 학생으로서 이 땅의 민주화에도 기여한 바가 있음을 넌지시 일러주었다. 운동권 학생에 늘 빛을 지고 있는 기분으로 살던 나는 그녀를 더욱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그녀 집을 방문했던 나는 좀 뜨악한 장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둘째를 임신하고 있던 그녀는 병원을 간다며 외출 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첫째가 딸인지라 둘째는 꼭 아들을 낳고 싶다며 딸이면 중절수술을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지갑에 중절 수술비까지 준비하고 간다며 집을 나서는 것이었다. 때는 1990년대 초반. 여전히 아들 선호사상이 만연해 있던 시기였다. 큰아이로 딸을 두고 있던 나도 둘째를 낳는다면 딸보다는 아들이기를 바라서 당시 다니던 성당에서 비교적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리기도 했다. 그때는 나이가 많든 적든, 배웠든 못 배웠든 거의 모든 엄마는 아들은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그러기에 그녀의 행동은 그다지 특출난 것도 아니었다. 단지 의식이 있다는 그녀였기에 좀 놀라웠을 뿐이었다. 다행히 그녀의 자궁 안에는 아들이 등지를 틀고 있었고 그 후 순산의 기쁨을 누렸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아이는 지금쯤 20대 후반쯤 됐을 것이다. '이대남(20대 남자)'인 그 아이는 어떻게 자랐을까? 지금이야 딸 많은 집은 부러움을 사고, 아들 많은 집은 근심(?)을 산다지만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딸이라는 이유로 태어나지도 못한 채 사라져야 하는 생명들이 많았다. 어쩌면 우리 세대의 슬픈 이야기일 수 있다. 병원이 귀하던 우리 어머니들 세대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출산

해 딸들이 세상의 빛이라도 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뿌리 깊은 아들 선호사상을 암암리에 주입 받아온 그 다음 세대는 귀한 아들을 얻는다는 명분으로 불법적인 태아 성감별과 낙태를 서슴지 않았다.

요즘 젊은이들이 겪는 젠더갈등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20여 년 전 그 상황이 떠오른다. 불법적인 성감별에 따른 낙태가 횡행하던 시절에 태어난 20~30대 남성들이 불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에, 짧은 머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페미니스트들을 몹쓸 집단으로 몰아갈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워낙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이제 겨우 조금씩 움직이는 정도인데 이 땅의 아들들이 너무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다. 무조건적인 양보와 배려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그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온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금씩 깨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거다.

바른 의식을 가진 젊은이라면 남성 여성 어느 누구도 어느 한 성에 대한 극단적인 기울어짐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왜곡된 성의식이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이슬람 국가들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은가? 때는 바야흐로 대선 정국이다. 어떤 특정 성의 지지를 받기 위해 선거판에 갈등을 조장하는 사례는 없는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볼 일이다. Ⓛ

청소년은 어떻게 길러지는가

권순지_『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편집위원

“
오직 둔감하고 본능적이며
섬세하지 못하기만 하면
정상적인 남자애로서
대우받을 수 있었다.
”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공동으로 펴낸 『걸 페미니즘』¹⁾에서 어느 남학생이 쓴 글의 일부이다. 남학교 청소년이 바라본 여성 혐오에 관해 쓴 해당 글은 자신이 가부장제 가정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불균형한 권력 구조 속의 구조적 가해자임을 인지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말한다. 성별 이분법적인 고정관념에 따라 결정된 남성성만이 위협받지 않는 남학교에서 ‘여혐’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를 말이다. 많은 수의 남학생들 일상의 언어는 젠더 권력의 우위에서 아무렇지 않게 배출되고 재생산된다. 욕설을 뱉고자 할 때면 입에 더 잘 감긴다는 이유로 ‘놈이 아닌 년’이란 표현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꼬추를 달고 있을 자격이 없다’라는 식의 말을 통해 여성은 낮은 위치로 전형화한다. 또한 여성은 대상으로 음담패설을 함으로써 성적 주체로서의 남성됨을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는 생략되고, 그에 관한 지적을 당하기라도 하면 ‘너도 페미니스트’라는 구별짓기로 상대를 조롱하는 집단 문화가 형성된다.

청소년 세대를 논하는 데 있어 학교와 가정은 중요한 오프라인 현장이 된다. 특히 현재 사회적으로 표면화된 젠더갈등과 관련하여 두 집단의 역할은 적지 않다. 청소년 세대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가정에서 학습하는 것은 교과 중심의 지식만이 아니다. 일부 교사와 부모 세대에 의해 전승되는 고정된 젠더 관념은 남성

청소년과 여성청소년을 점점 더 분리시키고 종래에는 젠더갈등의 주체로 자라나게 만든다. “공부를 잘하면 나중에 집안일 잘하고 애 잘 키우는 현모양처를 만날 수 있다”, “그런 좋은 여성은 만나기 위해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라는 식의 언어에 길러진 남성청소년과, “여자는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 “얼굴 예쁘면 공부는 좀 못해도 된다”, “여자는 잘 웃어야 좋다”라는 식의 일상 언어에 노출되는 여성청소년의 갈등에는 분명 또 다른 근본적인 당사자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성별을 막론하고 젠더갈등과 혐오에 합류하는 기성세대의 고착화된 언어는 ‘학생다움’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본질화되어 나타난다. 남성청소년에겐 좋은 여성은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입 시켜 공부 성과를 달성시키려는 목적으로, 여성청소년에게는 착하게 길들여진, 자기 몸 관리 잘 하는 조신한 학생이 좋은 여성이라는 식의 ‘학생다움’과 ‘여성다움’을 결합한 방향으로 말이다. 이에 최근 온라인 남성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거진 ‘설거지론’²⁾과, 이에 대항하는 여성커뮤니티의 ‘짬(음식쓰레기)처리론’³⁾을 지켜보며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를 생각한 것은 필자의 단순한 감상이 아닐 것이다. 현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심화 중인 중첩적 젠더갈등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무엇을 학습했고 내면화하였는지를 꼼꼼히 점검하는 일은 그래서 필요하다. 더는 유보되지 말아야 할 문제인 것이다. ⓧ

1) 걸페미니즘 – 청소년인권×여성주의. 양지혜 외 저음, 2018.
2) 여성은 남성의 경제력에 무임승차하는 이기주의자로 규정하는 여성혐오. 〈한국일보 2021.08.12. 기사 참조〉
3) 젊어서 유흥업소 다니며 놀았던 남성들이 어리고 순진한 여성과 결혼한 이후, 자신은 놀려 다니면서 부인에게 독박육아를 하게 한다는 주장 〈한국일보 2021.08.12. 기사 참조〉

학교 다움

이유진_『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편집위원

‘학생다움’의 기준은
여학생들에게 더 엄격하다.
복장규제는 여학생에게
여성스러움, 적절한 꾸밈 등
성적 규범을 요구하는 동시에,
여학생의 몸을 섹슈얼하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고
통제한다.

「수업 시간에 갑자기 의자 위에 올라가 서서 속바지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한문 선생님은 내 눈이 쌩꺼풀이 없어 자기를 째려보는 것처럼 생겼다며 쌩을 했다.」
「친구가 고2 때 갑자기 키가 컸다. 치맛단을 최대한 늘려도 무릎이 보여서 계속 벌점을 받았고 결국 치마를 새로 샀다.」

하지만 이건 이미 몇 년 전의 일이다. 요즘 학교들은 머리 규정이 없어 염색이나 파마도 자유롭다는 기사가 나오고, 뉴스엔 Z세대가 자유롭다는 얘기와 버릇없다는 얘기가 번갈아가며 나온다. 요즘 학생들은, 그리고 요즘의 학교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전국 시도별 204개 학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속옷·스타킹 및 양말 등 용의복장 규제·규정을 명시한 학교¹⁾는 40%였다. 2010년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전국 6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은 복장, 두발 등의 용모에 대해 자기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의 경우 「학생인권조례」조차 없다.

“지나친 무늬와 장식이 있는 양말과 성인용 스타킹은 허용하지 않는다.”²⁾

“발목 없는 타이즈 착용 시 양말은 반드시 복사뼈를 덮도록 신어야 한다.”³⁾

“하복 상의 안에 흰색의 내의 또는 흰색 깃 없는 티셔츠(소매가 교복 밖으로 나오지 않는 길이) 만 허용한다.”⁴⁾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한 학생은 5일 이상 10일 이내의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및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다.”⁵⁾

“스타킹은 동복 및 춘·추복 착용 시 검정색, 회색, 살색 스타킹을 신는다.”⁶⁾

“지도 과정에서 기분 나쁜 표정과 태도를 보이는 행위는 별점 10점을 부여할 수 있다.”⁷⁾

모두 대전에 있는 학교들의 학생 생활 규정이다. 누군가는 ‘그러니까 학생답게 하고 다니면 되는 거 아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매일 ‘치마 길이를 봐야 한다’, ‘외투안에 재킷을 입었는지 확인하겠다’ 등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학생다움’의 기준은 여학생들에게 더 엄격하다. 복장규제는 여학생에게 여성스러움, 적절한 꾸밈 등 성적 규범을 요구하는 동시에, 여학생의 몸을 섹슈얼하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고 통제한다.⁸⁾ 교내 혐오 표현은 방치하고 성범죄 교사들은 복직하는 학교에서 학생의 복장은 양말 색깔까지 정해두려고 한다면, “학생인권법” 없는 학생 생활 규정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학생다움’을 규정하기 전에 ‘학교다운 학교’가 먼저 있어야 하는 건 아닐까? [W](#)

1)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학교알리미를 통해 전국 시도별로 204개 학교의 학생 생활규정을 표본 조사한 결과

2·3·4·5) 대전 S여고

6·7) 대전 C여고

8) 양지혜(청소년 폐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힐난도, 수치도, 자랑도 아닌–학교 현장과 청소년의 삶에서 성적 수치심은 어떻게 작동되는가’, ‘성적수치심’, 괜찮지 않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나를 사랑하는 일의 어려움

서한나_『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 편집위원

10대 시절의 나는 안팎으로 바빴다. 바깥세상의 일들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았고, 내면세계에서는 해석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서 생활하며 친구들과 있어야 했으니 친구 관계가 성적보다 중요했는데, 인간관계만큼 비논리적이며 예상 안 되면서도 자아와 기분에 영향이 큰 일이 또 없었기에 매일 신경을 쓰고 지내야 했다. 친구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이야기나 드라마, 가십 같은 것에 관심을 두면서 따라가야 대화에 동참할 수 있기도 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세상에는 그 세계 말고 다른 세계가 있으며 그 법칙 말고 다른 법칙이 있기도 하다는 걸 알았다면 마음이 조금 편하지 않았을까 돌이켜본다.

여남공학 중학교를 다니면서 여자아이들은 남자에게 관심이 있든 없든 남자를 의식하게 되기도 했다. 우리가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남자애들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여기면 그때부터 그게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남자애들이 잘해주는 여자애들이 있고 그들의 관심밖에 나는 여자애들이 있었다. 타인인 남자애들의 평가가 우리의 가치, 그날의 기분을 좌우하는게 이상하다고 여기는 친구들이 있었다면 좋았을 테지만, 성평등 교육 시간에는 피상적인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다. 나와 친구들은 남의 시선으로 자신을 평가하는데 익숙해졌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기준에 맞도록 단련했다. 표준체중이면서도 매일 석식을 굶고 복도에서 줄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는 일이었고, 그것은 나의 자아를 쪼그라들게 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엇으로 대하는지는 언제나 본능적으로 파악된다. 길거리에서 교복 입은 청소

녀를 쳐다보는 시선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 시선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에서 여자는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된다. 그 시선을 보낸 사람을 문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조심했어야 한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청소녀는 이 불가해한 세계와 계속해서 싸운다. 어떤 날에는 지고, 어떤 날에는 이긴다.

고등학교 시절은 여학교에서 보냈다. 반장도 전교회장도 여자, 간부수련회에 모인 애들도 다 여자였다. 거기엔 잘 노는 애들도 있고 카리스마 있는 애들도 있고 조용하게 공부 잘하는 애도 있었다. 웃긴 애들도 많았고 웃는 소리가 웃긴 애들도 많았다. 우리는 삼 년을 치열하고도 재미있게 보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벗어났을 때, 대학교에 간 친구들은 남을 웃기는 대신 열심히 웃어주었다. 우리는 10대, 20대 시기를 보내며 남자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일과 남자의 관심 안에 드는 일을 번갈아 경험한다.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랑받기 위해서 어떤 여자가 되어야 하는지 알게 된다.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했어도 그런 건술자리에서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진다. 남자들이 집에 데려다주려고 하는 여자가 되지 못하면 패배자가 된 기분을 느끼게 된다. 내가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해도 그들의 관심을 받는 일에는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회가 그것을 여자의 자존감과 연결해놓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영혼을 가졌든, 어떤 방향성을 지녔든, 나를 탐구하는 것에 앞서 내 피부톤에 어떤 패운데이션과 립 컬러가 어울리는지 먼저 알게 되는 처지에 놓인다. 통통한 내 몸을 미워하지 않고 싶어도, 미디어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의를 준다. 오랫동안 공격받는 사람은 공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체념하게 되고 약해지게 된다. 때로는 내가 공격

받을 짓을 해서 공격하는 게 아닐까 하며 가해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게 된다. 그 시선을 내면화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수치스러워하고 미워하며,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닮은 다른 사람을 경멸하게 된다. 같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들이 서로를 더 힘들게 만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어렵고, 원인 모를 혼란함을 느낀다. 내가 느끼는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생각하다 보면 나를 미워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데서 조금씩 방향을 틀게 된다.

2018년에는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10대 페미니스트들을 인터뷰했다. 2016년 이후 페미니즘이 다시 화두에 올랐고, 교내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했다. 학교 안에도 페미니스트가 있었다. 매우 소수이긴 했지만, 이들은 서로를 찾으며 함께 이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가고 있었다. 교내에서 흔히 일어나곤 하는 선생님의 성희롱에 반기를 들고, 남학생들의 외모 평가가 어째서 잘못된 것인지 지적했다. 교내에서 페미니스트인 것이 알려지면 조롱당하고 공격받는다고 했다. 그럴수록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찾는 것이 중요해진다. 서로의 말을 알아듣는 관계가 필요해진다. 이들은 교내의 다른 페미니스트를 찾고, 이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공부한다.

청소년들이 지금 이곳에서 겪고 있을 괴로움과 외로움의 모양은 제각기 다르겠지만, 지금의 불평등한 사회가 그 괴로움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알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적고,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10대 시절을 여성으로 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교감할 수 있는 친구를 찾게 되고, 언제든 도움받을 수 있는 이들이 주변에 있어 주면 좋겠다. 자신을 사랑하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상황은 좀 더 나아질 것이다. ☺

Deajeon Student Disc의 추억

장유원 | DSD 회장, 고등학생



장유원 · DSD 회장

여성 청소년은 남성 청소년에 비해 운동을 자유롭게 즐길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DSD처럼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여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모임이 많을 겁니다. 기회가 생긴다면 꼭 모임에 참여하여 행복하게 웃으며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넓은 운동장, 푸른 잔디밭 모두 여러분이 즐기실 공간입니다.

송유진 · DSD 부회장

제가 중학생 시절 여남 공학 학교를 다닐 때는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이 운동장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DSD를 통해 대전의 여러 학생들과 함께 넓은 풀밭을 다 사용하며 함께 운동할 수 있어서 그 시간들이 매우 행복하고 뜻 깊었습니다.



DSD는 2020년 4월 8일부터 2021년 9월 21일까지 운영되었던 대전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 청소년을 위한 팀. 대전 여성 청소년 얼티밋 팀이다.

얼티밋은 플라잉 디스크를 이용하여 상대편 엔드 존에 터치다운하여 득점하는 경기다. 필자는 중학교 때 학교 스포츠 클럽으로 얼티밋을 했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얼티밋을 하고 싶어서 DSD를 만들게 되었다. 팀을 만들 당시에는 단순히 경기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전의 여성 청소년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DSD 초기 팀원은 중학교 때 같이 학교 스포츠 클럽을 했던 친구들이었는데, 점점 같은 학교 언니, 친구, 동생뿐만 아니라 대회에서 만났던 다른 학교 언니, 친구, 동생들도 한 팀으로 모이게 되었다. 재미를 느낀 팀원들이 친한 친구들을 한 명씩 데려오기 시작했고 DSD는 어느새 40명이 출전 넘는 인원이 되었다. 얼티밋이 축구, 농구처럼 대중화된 운동이 아니라 새로운 팀원들은 처음에 디스크 던지는 방법을 어려워 했지만 운영진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도 새로운 팀원이 오면 친절하게 알려주고 함께 패스 연습을 했기에 금방 적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팀원들의 학업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즐겁고 안전하게 또 여유롭게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2시간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DSD 모임은 시간은 약 2시간으로 진행된다. 처음 1시간은 준비 체조, 패스 연습, 수비/공격 연습 등으로 몸을 데우고, 나머지 1시간은 팀을 반으로 나누어 경기를 하면서, 하프타





고서하 · DSD팀원

DSD는 중학교 때 매일같이 즐겨했던 얼티밋을 고등학교에 오면서 할 기회가 적어져서 아쉬워하고 있었을 때 그 아쉬움을 채워준 팀입니다. 중학생 시절 같이 얼티밋을 했던 선배들과 중학교 졸업 후에도 계속 같이 운동을 하며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은 물론이고 새롭고 소중한 인연도 만날 수 있었기에 저에게는 단순한 운동 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팀원으로서 회장과 부회장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것과 가끔은 서툴지만 팀원들을 도와 운동을 진행한 것 모두 값진 경험으로 남아있습니다. 많은 여성 청소년들이 제가 느낀 것을 경험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지 · DSD팀원

플라잉디스크를 처음 들어봤을 때 단순히 던지고 받는 것만 생각했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제대로 경기방식도 있는 종목이어서 실제로 해봤을 때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다른 스포츠보다 필요한 것이 적기도 하고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운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처음 만나는 여성들이
하나가 되어
경기를 하고
친해진다는 게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날이었다.

임에 작전도 짜며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상대편 수비를 따돌려 득점하는 방법을 찾아내기도 한다.

보통 2시간 내내 운동을 하다 보면 체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흥미를 잃을 수도 있어서 팀원들끼리 대화도 나누고 다른 재밌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팀원들과 경기장을 만들 때 쓰는 라바콘으로 저글링을 한 적도 종종 있었다. 다들 학교 체육 시간에 저글링을 배운 경험이 있어 꽤 재미있어 했는데 필자가 저글링을 하다가 실수로 본인이 던진 콘에 머리를 맞아서 팀원들과 한참 동안 웃었던 기억이 생각난다. 2020년 5월 16일은 DSD가 가장 즐거웠던 날로 기억한다. 대전 단디(DANDI) 팀과 친선 경기를 한 날이다.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경기를 하다 보니 긴장도 많이 했지만 너무 잘하는 상대팀에 놀라고 감탄하며 경기를 즐겼다. 함께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처음 만나는 여성들이 하나가 되어 경기를 하고 친해진다는 게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날이었다.

하지만 DSD를 운영하면서 팀원들의 바쁜 일상은 항상 DSD의 큰 난제였다. 2020년 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개학이 연기되어 4월부터 5월까지는 학교를 가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덕분에 팀원들이 경기에 많이 참여하고 DSD 모임을 여유롭게 즐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 일정과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팀원들이 많아져 점점 참여율이 떨어졌다. DSD 팀이 해체하게 된 사연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회장과 부회장을 비롯한 DSD 운영진들이 대학교 입시 준비로 점점 바빠져 정상적인 모임 운영에 한계를 느껴 오랜 고민 끝에 팀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DSD는 이제 고등학생 시절의 추억 한편으로 자리 잡게 되었지만 우리에게 힘든 수험생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갖게 해줬고, 여성들끼리도 모이면 무엇이든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지게 해주었다. 같이 뛰어준 팀원들,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졸업하고 꼭 다시 만나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잖아!



10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

최유경 | 청소년 폐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활동가



청소년 폐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트위터 · 인스타그램 @wetee0608
홈페이지 www.wetee.kr

“하루는 여성주의 책을 읽고 함께 감상을 나누는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저 또한 참여자로서 읽은 책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 모임의 참여자였던 한 중년 남성은 제게 ‘솔직히 당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듣지 않았지만, 내게도 저렇게 열심히 책을 읽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회상할 수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월씬 많아 보였던 다른 참여자들 역시 하하호호웃으며 자기도 그랬다고 화답했습니다. 그 순간, 기분이 무척이나 나빴습니다. 열심히 하려는 현재의 제 모습이 그저 ‘젊은 날의 열정’으로, ‘당신의 과거’로 여겨지는 듯 했고, 그건 마치 제 최선의 노력이 어른들 앞 한낱 재롱처럼 느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공간 속에서는 저는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존중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건 그 날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어딜 가든 애써 나이를 숨겨야 했던, 청소년임을 밝히는 게 부끄러웠던 시간들이 스쳐지나갔습니다. 폐미니즘만으로는 대변할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필자가 위티를 준비하며 여성 청소년으로 경험하고 기억했던 차별의 순간을 기록한 글이다. 이러한 경험들이 켜켜이 쌓여 결국 위티에서의 활동을,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 같다. '여성 청소년'은 페미니즘만으로, 또 청소년 인권만으로는 대변되지 않는 '복합적' 차별을 경험한다.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위티는 2019년 6월, 스쿨미투를 계기로 창립된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네트워크다. 2018년 사회를 뒤덮었던 스쿨미투,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면 집을 나가라"며 청소년을 통제하는 친권자의 말들, 여전히 만 18세를 큰 전진으로 여겨야 하는 청소년의 참정권, 순결해야 하지만 동시에 섹슈얼적 메타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여성 청소년의 일상은 그 자체로 여성 청소년을 향한 이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보여준다.

위티가 단체로 출범하게 된 계기인 스쿨미투 운동은 폭력과 혐오로 얼룩져 있는 여학생들의 일상을 사회적 문제로서 호명했고, 그동안 무정치하고 수동적인 존재로만 여겨졌던 여성 청소년들이 '말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운동가"로서 거리로 나섰고 용기 있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고발했다. 그리고 이러한 말하기들은 실제로 학교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변화로 이어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스쿨미투에 대해 들어보았고, 학내 성폭력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셨다면 그 역시 스쿨미투 운동의 의의가 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스쿨미투에 대한 말하기들은 많은 한계와 어려움을 깨닫게도 했다. 가해 교사는 학교로 복직하고, 고발자로 나선 이들은 학교 내에서 다시 눈총과 백래시를 경험하고, 청소년을 피해자로만 호명하는 사회는 학교의 불평등이 아닌 교사 개인의 악마성에만 주목했다. 특히 피해 사실을 고발한 청소년들은 말하기 이후 자신의 말하기가 만들어낸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피해 사실을 의심받고 무정치와 "가만히 있으라"는 '학생다움'을 요구받으며 고립되었다.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를 긍기시하는 사회에서 위티는 「자색고구미」와 함께 '힐난도 수치도 자랑도 아닌 콘돔전시회'를 주최했다. 기존의 강간과 섹스를 혼동하는 포르노적 문법에서 벗어난 퀴어/여성/청소년의 성적 발화가 새롭고 자유로울 수 있는 '윤리적 지대'를 만들고자 했다. 퀴어/여성/청소년 작가들이 직접 콘돔과 청소년의 섹슈얼리티/섹스를 주제로 작품을 창작하고 또 전시하며 새로운 섹슈얼리티의 문법을 공유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멈추지 않고 많은 사회

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으로부터 <왜 누구에게는 n번방이고 누구에게는 일탈계인가>라는 제목의 논평 발표로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사회경제적 여건의 연결성을 질문하기도 했다. 이는 단순히 n번방이라는 가해의 참담함과 사건의 악마성을 넘어 n번방의 기저에는 사회에서 청소년의 성적권리를 침해해온 긴 역사가 있음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우리는 청소년의 평등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여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이를 위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권과 참정권처럼 청소년의 사회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제안하는 일들에 동참하고 있기도 하다. 청소년의 참정권은 '투표지 한 장'을 넘어 청소년을 동등한 동료 시민으로 호명하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며, 주거권은 청소년이 누군가의 소유물이나 구성원만이 아닌 그 자체로 존엄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다. 위티는 이러한 권리 보장이 여성 청소년의 삶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이어져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인권 문제에 대해 한 가지 인권만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듯, 청소년의 인권 역시 어느 한 가지를 빼놓고 쟁취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위티는 그 자체로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한다. 비청소년 위주로 설계되어 있는 시민 사회에서 청소년 인권에 대한 담론을 다룰 수는 있지만, 청소년과 함께 말하기는 어렵다. 청소년의 시공간적 권리가 대부분 친권자나 학교, 사교육 등에 묶여있는 현실에서 이들이 자유롭게 활동에 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위티는 대신 말하는 것이 아닌 함께 말하고자 한다. 위티의 공동대표는 청소년할당제로 인해 청소년 1인을 포함해야 하며, 위티의 활동가는 대부분 청소년 시기부터 활동을 시작해온 이들이다. 청소년이 비청소년이 되기까지의 기간을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다고 유예하는 것이 아닌 지금 당장 삶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여전히 위티는 청소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는 믿음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청소년이자 페미니스트다.
청소년은 문제의 당사자는 될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기져 왔다.
누구도 청소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소년 페미니스트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2018년, 우리는 수십 년간 은폐되었던
학내 성폭력을 고발했고,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성역할을 거부했다.
우리는 당사자로 머무르는 것을 넘어,
변화를 만드는 한 사람으로 고자 한다.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말하고자 이어지기 위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반이 필요하다.
나이를 이유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우리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확장되도록
지속 가능한 활동의 기반이 필요하다.
고립되어 있던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서로의 통로가 되고,
세상을 바꾸는 기회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2019년 6월, 위티 창립선언문 중〉



소녀들은 그렇게 어른이 된다

성차별과 왜곡된 시선에서 성장통을 겪는 소녀들의 이야기

영화〈걸스 오브 막시〉와 〈마이 스키니 시스터〉

지나라 | 스토리콘텐츠 말·글 대표

소녀는 언제 성에 눈을 뜨게 될까요?

또 조심스럽게 성에 눈 뜬 소녀는 언제 성이 단순히 남녀의 차이가 아니라 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까요? 학교가 사회의 축소판이라면, 사회로 들어가는 출입문이라면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첫 '경험'은 학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소개할 〈걸스 오브 막시(Moxie), 2021〉과 〈마이 스키니 시스터(My Skinny Sister), 2015〉 두 편의 영화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어른의 세계를 배워가는 '소녀(들)'의 모습을 카메라 앵글에 담았습니다. 시선은 다르지만, 여성을 바라보는 잘못된 사회적 시선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향점은 같습니다.

영화 〈걸스 오브 막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 성적인 대상으로 잘못 소비되는 것에 반기를 들고 연대하는 과정을 그렸다.
〈사진출처=Netflix〉





“

교내 SNS에서 가장 순종적인 여성으로 꼽혔던 비비언은 자신들이 남학생들에게 성적으로 소비되는 것에 반기를 들고, 소량으로 배포되던 잡지 '막시'는 같은 생각을 하는 여학생들을 결집하는 플랫폼이 됩니다.

”

〈걸스 오브 막시〉의 주인공 비비언은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대학 진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죠. 자기처럼 조용한 성격의 친구와 함께 가벼운 수다를 떨면서 말이죠. 비비언의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루시라는 학생이 전학을 오면서부터입니다. 루시는 전학 온 첫 날 남성 풋볼팀 주장인 미첼과 말싸움을 벌입니다. 그 후 루시는 미첼로부터 전혀 유쾌하지 않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괴롭힘도 당하죠. 그 장면을 목격한 비비언은 무시하고 잠자코 고개를 숙이고 있으라고 조언합니다. 미첼이 단순히 여학생을 놀리고 괴롭히는 인물이 아니라 위협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말이죠.

학교에서는 '최고의 엉덩이'처럼 성차별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리스트를 만들어 학생들 사이에서 배포되고, 어느 날 '가장 순종적인 여성'이라는 새로운 리스트에 자신이 1위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날 밤 비비언은 10대 시절 가부장제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던 엄마의 과거 흔적을 바탕으로 뭔가를

만들고, 그것을 50부 복사합니다. ‘막시(용기)’라는 이름의 초소형 잡지가 처음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잡지는 여성 화장실에 몰래 비치되고, 이에 공감하는 여학생들이 하나 둘 늘어갑니다. 이렇게 교내 SNS에서 가장 순종적인 여성으로 꼽혔던 비비언은 자신들이 남학생들에게 성적으로 소비되는 것에 반기를 들고, 소량으로 배포되던 잡지 ‘막시’는 같은 생각을 하는 여학생들을 결집하는 플랫폼이 됩니다.

〈걸스 오브 막시〉가 학교 내 성차별과 여성 혐오 등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마이 스키니 시스터〉는 그런 예민한 문제에 보다 간접적으로 접근합니다. 초등학생인 주인공 스텔라에게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 언니 카티야가 있습니다. 예쁘고 날씬하며 스케이트까지 잘 타는 언니 카티야는 스텔라에게 그야말로 살아있는 롤 모델이죠. 더구나 스텔라는 언니에게 밀려 집에서도 항상 찬밥 신세인 데다 학교에서도 모두 언니에게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언니가 모두의 스타인 반면, 스텔라는 애물단지나 투명인간에 불과한 존재인 셈이죠.

그러던 어느 날 스텔라는 언니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부러움의 대상이자 자신의 를 모

델이었던 언니가 사실은 마른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막은 음식을 토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스텔라는 고민에 빠집니다. 거식증에 걸린 언니를 위해 이 사실을 어른들에게 알릴 것인가, 말 것인가. 결국, 언니가 음식을 토해낸다는 사실을 알리지만, 결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2015년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이 영화는 10대 소녀의 외모에 대한 인식, 성 가치관, 그리고 사회적 성 고정관념 등을 어둡지 않게, 유쾌하게 다룹니다.

〈걸스 오브 막시〉의 비비언은 11학년 등교 첫날부터 여학생을 폼평하는 리스트에 관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슴으로는 불쾌감을 느끼지만, 머리로는 그게 왜 불쾌하고 불편한 일인지 아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이 스키니 시스터〉의 스텔라는 언니가 마른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토한다는 것도, 이런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게 왜 언니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동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걸스 오브 막시〉의 비비언이 저항과 행동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반해, 〈마이 스키니 시스터〉의 스텔라는 언니에 대한 관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엇갈린 두 영화의 시선이 만나

“

조언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나는 앞으로도 고개
뺏뺏이 들고 다닐 거야

”



언니의 비밀을 알게 된 한 소녀의 성장기를 그린 영화 〈마이 스키니 시스터〉. (사진 출처=www.filmivast.com)

는 곳은 결국 연대와 사랑입니다. 작고 연약해 보이기만 하는 소녀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을 살아볼 만한 가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게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 가죠.

두 영화의 작품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유쾌하고 따뜻한 영화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두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걸스 오브 막시〉에서 비비언과 루시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비비언은 루이에게 “잠자코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러자 루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언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나는 앞으로도 고개 뺏뺏이 들고 다닐 거야.” Ⓜ

“소녀들이여 디즈니를 보지 말라”, 〈겨울왕국〉빼고?

〈겨울왕국〉의 두 공주.

엘사와 안나가 사랑받은 이유

〈캐리비안의 해적〉, 〈비긴 어게인〉 등으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배우 키이라 나이틀리가 몇 해 전 자신의 딸에게 디즈니 영화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된 바 있죠. 영화에 나오는 여성상이 자신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여성상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디즈니 영화로 〈신데렐라〉와 〈인어공주〉를 꼽았습니다. 나이틀리는 신데렐라의 왜곡된 여성상을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죠. “부자 남성이 자신을 구해줄 것을 기다린다. 그러지 마라. 내가 나를 구하면 된다.” 또 〈인어공주〉에 대해서는 “노래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 남자 때문에 내 목소리를 포기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모든 디즈니 영화를 금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틀리는 딸에게 기끼이 보여주는 디즈니 영화 중 하나로 〈겨울왕국〉을 추천했는데요. 추위가 한창이던 2014년 1월, 국내에서 개봉해 폭발적인 인기를 끈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Frozen)〉에서 보여준 여성상은 전통적인 디즈니 영화의 그것과 사뭇 달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법의 힘을 가지고 태어난 공주 엘사. 어느 날 왕과 왕비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게 되고, 엘사는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데요. 대관식에서 동생 안나가 처음 본 이웃나라 왕자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하자 엘사는 숨겨두었던 마법의 힘을 드러내고 말죠. 이에 절망한 엘사는 왕국을 떠나고, 엘



사의 마법 때문에 왕국이 얼음으로 변하자 안나는 이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 언니 엘사를 찾아 나섭니다.

〈겨울왕국〉 역시 결론은 해피엔딩이지만, 기존 디즈니 영화의 문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를 잃은 엘사와 안나, 두 공주는 왕자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엘사는 얼음궁전에 자신을 가두면서 자유를 찾고, 안나는 겨울왕국이 된 왕국의 계절을 되돌리고 언니와 화해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죠. 이들을 위기에서 구한 것은 백마 탄 왕자가 아니라 스스로 삶과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본인들의 의지와 용기였습니다.

마침내 안나는 위험에 처한 언니 엘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엘사 역시 동생 안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가족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깨닫게 된 엘사와 안나는 생명을 되찾고 왕국에는 다시 봄이 찾아옵니다. 〈겨울왕국〉은 자매애가 이야기를 끌어가는 큰 줄기지만, 자매간의 우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감과 연대로 자신들의 운명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영화는 말합니다. 더 이상 백마 탄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사진 출처=www.disneyplus.com)

왕자를 기다리거나 왕자의 입맞춤으로 잠에서 깨어나는 공주는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을 디즈니도 인정한 셈이죠. 영화뿐 아니라 주제가 ‘렛 잇 고(Let it go)’도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가사를 들어보면 〈겨울왕국〉이 왜 종전 디즈니 영화의 여성상과 다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멀어지면 모든 게 작게 보이니 참 웃기지 / 그리고 한때 날 지배했던 공포도 나를 전혀 괴롭힐 수 없어 /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때야 / 한계를 시험하고 돌파하는 거야 / (...) 다 잊어 다 잊어 / 나는 바람과 하늘과 함께할 거야 / 다 잊어 다 잊어 / 더 이상 내가 우는 것을 보지 못할 거야.” Ⓜ

Portrait of Charlotte du Val d'Ognes

샤를로트의 초상

김인희 | 인문학 강사, 프리랜서

“

이 그림은 결혼한 여자로서,
화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여성 예술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담은
초상화라는 것이다.

”

마리 드니즈 빌레르, 샤를로트 뒤팔도네의 초상
1801년 | 캔버스에 유채 | 높이 161.3cm, 너비 128.6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 빌레르는 함께 일하던 동료 여성 화가를 의자에 앉아
모델을 바라보며 작업하는 자세로 그렸다.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인물에 권위를 부여
하는 자세였다.

만약 안견(安堅)의 동유도원도(夢遊桃源圖)가 안견이 아닌 이름 없는 여성화가가 그린 것이라고 밝혀진다면? 정선(鄭敎)의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 역시 정선이 아닌 이름 없는 여성화가가 그린 것이라고 새롭게 알려진다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니 두 작품을 감정했던 미술사 학자들이야 말로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갑자기 이런 고약한 상상을 하게 만드는 작품이 하나 있다.

'샤를로트 뒤발 도네의 초상'은 지난 1917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기증된 아이작 더들리 플레처(1844~1917)의 유증품 중의 하나이다. 사업가이자 미술 애호가였던 플레처는 세상을 떠나면서 일생동안 모은 고전 명화들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기증했는데, 그 중 이 '샤를로트...'의 초상화는 가장 주목받은 작품이었다. 작품을 살펴보면 마치 고대 그리스 조각처럼 품위 있는 젊은 여인이 진짜 그리스 사람 같은 의상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다. 작품이 제작된 1801년은 나폴레옹 제정기로, 여인은 당시 유행했던 의상을 입고 무릎에는 화폭을 세워 한손으로 짚고 다른 한 손은 펜을 거머쥐고 있다. 당장이라도 스케치를 시작할 듯 고개를 들어 측면을 응시하고 있는데, 그 특유의 진지한 눈빛이 자연스럽고 힘 있는 자세와 어우러지며 진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실로 단순하고 명료한 힘을 가진 걸작이다. 당시 박물관측의 보도 자료를 보면 '다비드의 걸작' '뉴욕의 다비드' 같은 수식어들이 등장하는데, 이 초상화를 한 시대를 풍미한 프랑스 신고전주의의 대가 자크 르이 다비드(1748~1825)의 대표작 중 하나로 한껏 치켜세우려는 의도가 보여서 흥미롭다.(사실 충분히 그 정도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시각으로 봄서는 신고전주의 사조 자체가 그닥 평가받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보니(현재 신고전주의 사조가 크게 유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북한과 중국을 꼽을 수 있다) 이런 호들갑이 새삼스럽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아직 1차 세계대전(1914~1918)이 채 끝나지 않았던 그 시절의 서구 세계에서는 미술계에서 신고전주의의 위상은 건재했었다.(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0년대까지) 여하튼 대가의 작품이라는 위상에 힘입어 이 '샤를로트'의 초상화는 이후 수십 년간 메트로폴리탄의 인기작품이 되었다.

그런데 1947년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 (전쟁 때문에 미국으로 피난 온)프랑스 출신 미술사학자이자 메트로폴리탄의 학예사였던 샤를 스텔링이 프랑스 회화 컬렉션을 준비하던 중 다비드의 1801년 살롱전에 관한 문헌자료를 확인하게 된 것이다. 다비드는 그해 살롱전에 출품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정작 그의 작품이라는 '샤를로트...'의 초상화는 그 살롱전에 출품된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후 4년 뒤인 1951년 스텔링은 연구 자료를 보강한 뒤 메트로폴리탄 회보에 이 초상화가 다비드의 작품이 아니며 놀랍게도, 다른 여성 화가의 작품으로 보인다는 소논문을 발표했다.(스텔링은 그 여성 화가가 콩스탕스 샤르팡티에로 보인다고 추정했는데 이후 그의 제자인 미술사학자 오펜하이머가 다른 여성 화가인 마리 드니즈 빌레르(1774~1821)가 그린 것으로 밝혀냈다)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응들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일단 어느 누구도 다비드에 필적할 무명화가의 재발견



❶ 마리 드니즈 빌레르, 자연을 배경으로 한 여인의 초상화

1802년 | 캔버스에 유채 | 높이 146cm, 너비 114cm

파리 루브르 박물관

· 살짝 숙인 자세로 신발끈을 고쳐 묶는 도상은 고대 그리스에서 니케 여신이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자세였다. 빌레르는 여인의 단독 초상화에서 고대의 작품을 자연스럽게 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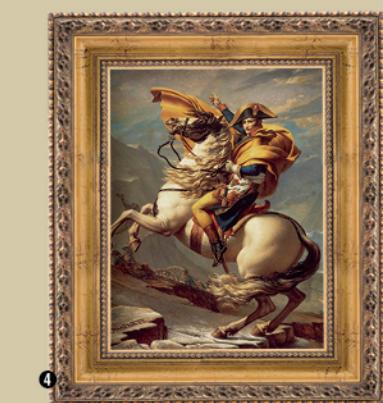
❷ 레카미에 부인의 초상, 다비드

1800년 | 캔버스에 유채 | 높이 173cm, 너비 243cm

파리 루브르 박물관

· 다비드는 당시의 명사들을 고대 그리스 인들처럼 그리는 데 능했다. 레카미에 부인이 당시 유행하던 그리스 풍의 드레스(엠파이어 스타일)를 입고 있다.

을 반기지 않았다. 유명 남성 화가가 그렸다고 여겨졌던 인기 있는 작품이 사실은 이름 없는 여성 화가가 그렸다는 것으로 알려지자 사람들의 반응은 새로운 진실을 알게 된 것이 기쁘기는커녕 은근한 실망감이나 혹은 상실감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이 작품에 대한 대중적인 인기는 여전했지만(대중은 다비드와 르카미에로 구별 못할 테니) 일부 학자들이나 평론가들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졌다. 이 작품이 여성 화가의 작품이라는 것을 밝혀낸 스텔링은 심지어 “작자가 여성이라는 점이 작품이 가진 단점을 전부 설명한다”고 단언하기까지 했다. 바로 작품 전체에



❸ 레카미에 부인의 초상, 다비드

1800년 | 캔버스에 유채 | 높이 173cm, 너비 243cm
파리 르브르 박물관

·다비드는 당시의 명사들을 고대 그리스인들처럼 그리는데 능했다. 레카미에 부인이 당시 유행하던 그리스풍의 드레스(엠파이어스타일)를 입고 있다.

❹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다비드

1800년 | 캔버스에 유채 | 높이 259cm, 너비 221cm
발메종 박물관

·신고전주의의 거장 다비드의 대표작. 고대 그리스로마풍의 신고전주의 정치 선전화에 능했던 다비드는 이같이 장엄한 역사화를 다수 그려서 나폴레옹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어용화가였다.

흐르는 특유의 여성적인 분위기가 이 작품의 유일한 단점이었는데, 작가의 성별이 그 모순점을 제대로 설명해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자와 평론가들의 대단히 합리적이지 못한 평가는 아직 페미니즘 미술 평론이 등장하기 전의, 1950년대의 미술계의 풍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때까지도 미술사학자와 평론가들은 작품 그 자체에 대한 평가에 성별 특유의 편견을 담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다. 놀랍게도 남자 작가로 알려졌다가 여자 작가로 새롭게 알려진, 이러한 작품에 대해서조차도 그런 편견에 의거해 학술적 견해를 뒤집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적인 관점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페미니즘 미술 비평 운동이 등장하면서부터 비로소 학술적으로 교정이 가능해졌다.

다시 작품 이야기로 돌아가본다면, 이제 남성 화가 다비드의 작품에서 여성 화가 마리 드니즈 빌레르의 작품이라는 관점에서 이 초상화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남성 화가의 그림이라면 이런 종류의 초상화 혹은 인물화는 읽는 관점이 있다. 이 시절의 그림에는 많은 상징을 사용했는데 특히 배경에 그려진 깨진 유리창이 바로 그것이다(보통은 깨진 거울이나 깨진 그릇들도 많이 그려졌다) 이런 소품들은 인물이 젊은 여성 일 경우 연애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특히 배경에서 멀리 연인 혹은 부부로 보이는 남녀의 실루엣이 그려진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결론은 풍속화를 겸한 초상화라는 것) 그러나 이 그림이 여성 이 그림 것으로 밝혀진 이후에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마리 드니즈 빌레르의 ‘샤를로트 뒤발 도네의 초상’은 여성 화가가 동료 여성 화가를 그린 작품이다.(두 사람 모두 혁명기와 제정기에 르브르 갤러리에 출입을 허가받은 화가들이었다) 이 그림을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작품이 그려진 1801년의 시대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다비드나 빌레르가 활약했던 18세기 말 19세기 초의 왕정 - 혁명기를 전후로 한 프랑스는 제한적으로나마 여성 화가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였다. 특히 왕정 시절에는 미술 아카데미에 극소수이지만 여성 화가들을 회원으로 인정도 하던 시기여서 이때 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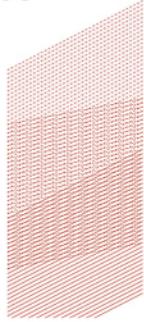
한 비제 르브룅(1755~1842)이나 라비유 기야르(1749~1803) 같은 여성 화가들은 궁정 화가로도 활약하고 제자들을(물론 여성 제자들) 육성하기도 하면서 나름의 활동 영역을 구가해 가던 시절이었다.(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누드 모델의 실습이나 남학생들과 함께 교육받는 것은 금지였다) 대혁명기(1789~1799)에도 이 같은 기조는 불안하나마 이어졌지만 이후 들어선 나폴레옹 제정기(1800~1815)에는 이 같은 제한적인 기회마저 박탈되고 만다. 여성 인권을 루이 14세 시절보다 퇴보시켰다는 나폴레옹 민법전에서,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여성의 진출을 금했기 때문이었다.(이후 여성 화가들은 모든 화가들에게 개방되었던 르브르에서 추방되기에 이른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샤를로트의 초상화의 배경 전면에 드리워진 깨진 유리창의 쓸쓸한 의미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다. 미술사학자 히고넷은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건물이 르브르의 갤러리라는 걸 증명해 냈는데 그렇다면 깨진 유리창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는 것이다. 유리창을 경계로 예술가의 삶이 있는 실내(르브르 갤러리)와 지나가는 행인(먼 실루엣의 남녀)이 있는 바깥 세상(혹은 시대가 요구하는 아내라는 여인의 삶).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릴 시기(1801년)의 빌레르는 이미 결혼한지 몇 해가 지난터였다. 다시 말해 이 그림은 결혼한 여자로서, 화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여성 예술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담은 초상화라는 것이다.

역사의 해석이 그렇듯 미술사 역시 작품의 해석에는 시대 배경과 그 작품을 만든 미술가가 처한 환경 그리고 작품을 해석하는 학자와 평론가의 시대와 관점도 들어가게 된다. 이는 여성이 만든 작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시대의 여성은 남성과 전혀 다른 차별과 배제하에서 미술 작품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작품에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만에 하나 우리의 고전 미술에서 여자 안경과 여자 정선을 만난다면?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시대와 조우했던 그들의 작품을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일 것이다. w

보기 좋은 몸에서 살기 좋은 몸으로

서한나 | 여성의 행복한 도시, 대전 편집위원

탈코르셋 :
도래한 상상



이
인
경

"선을 넘어야 한다. 넘기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이민경 신작

한겨레출판

『탈코르셋: 도래한 상상』 출처: YES24

여성 스트릿 댄서들의 경연프로그램 스트릿우먼파이터(이하 '스우파')가 종영 이후에도 늘상 화제다. 심대를 중심으로 스트릿댄스 학원에 등록하는 비율이 늘었고, 스우파 댄서들의 스타일링을 멋지다고 여기며 따라 입는 현상도 SNS에서 관찰된다.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자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트레이닝복, 특이한 패턴의 추리닝 위에 넉넉한 품의 셔츠를 입는 출연자들이 눈에 띠었다. 처음에는 빨간 립스틱에 강렬한 눈화장을 한 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회차를 거듭할수록 몇몇 출연자의 맨얼굴도 화면에 잡하면서 그들이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고, 그들의 춤 자체에 집중할 수 있었다.

시청자는 출연자의 매력과 그간의 관계성, 퍼포먼스에 열광했다. 그러는 사이 그들의 스타일에 익숙해지고, 제스처나 옷차림을 따라 하게 되었다. 우리 가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또다시 우리를 만드는 것이다. 만일 세상이 우리에게 20대 여자의 맨얼굴과 평범진한 옷은 스타일을 포기한 것, 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그 말을 믿게 될 것이다. 파운데이션과 립스틱은 최소한의 예의이며, 운동화를 신는 것보다 구두를 신는 게 더욱 성숙하고 매력적인 차림이라고 이야기 한다면, 운동화를 편하고 멋지게 신어왔던 사람들도 지하상가를 지나가며 구두 매장을 힐끗거리게 된다.

2015년 페미니즘이 재부흥한 이후, 허리까지 오던 긴 생머리를 단숨에 삭발한 '탈코러'들이 등장했다. 긴 생머리를 단백질로 된 허잡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하자 더이상 유지할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집 앞 슈퍼에 갈 때도 맨얼굴로 나갈 자신이 없어 화장을 했다는 사람들의 고백이 줄줄이 이어졌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여성들이 색조화장품을 부수는 사진과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들은 "남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라는 오해와 마주했고, 학교 안 청소년은 남학생들로부터 언어폭력을, 동급생으로부터 왕따를 당했다.

탈코르셋은 꾸밀 자유를 억압한다, 머리카락을 기르고 화장할 자유도 있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탈코르셋: 도래한 상상〉 책에서 필자가 이야기하듯, "여성에게는 꾸밈노동이 오로지 조건부로만 면제"된다. (p.54) 맨얼굴로 출근하면 피곤하냐는 말을 듣거나 늦잠 잤냐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이는 여성에게 코르셋이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인 현실을 보여준다. 우리에게 '다양성'이 허락된 적은 없다.

책에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트위터를 통해 학급에서 실시한 활동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자신의 눈에 대해 설명해보자'는 활동의 결과, 여자아이들은 '눈이 작다', '쌍커풀이 없다' 하는 식으로 적었지만, 남자아이들은 '0.3'이다라고 적었다.

여자는 덩치가 크면 "등빨이 좋다", "운동선수냐"며 놀림을 받는다. 이것이 놀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자에게 외모의 기준이 사회적으로 공고하게 퍼져있고, 그것에서 이탈하면 수치심을 느끼도록 설계되어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은 여자도 알고, 남자도 안다. 그러나 필자가 지적하듯, 체격이 좋을수록 생존에 유리하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오래 우리의 몸을 미적으로 보도록, 기능과 생명력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도록 길러졌다. 대형마트의 유아 장난감 코너에 가보면 대번에 알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코르셋이 강요된다는 사실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가 솟컷을 했다는 이유로 듣고 있는 "머리 언제 기를 거예요?" "페미니스트예요?" 같은 질문은 안산 선수를 경유해 또 다른 여성들에게 가하는 공격이다. 규범에 맞는 여성이 되라는 명령이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도 피해갈 수 없는 테러는 학교 안팎의 페미니스트 청소년들이 탈코르셋을 했을 때 받게 될 공격을 짐작하게 한다. 여성 청소년이 편한 옷차림과 맨얼굴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려면, 더 많은 안경 쓴 언니들과 짧은 머리 여자들, 그리고 이들을 지켜줄 탈코르셋 담론이 필요하다. ☺



일상 속 '평등 더하기'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대전

#1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성평등과 나다움을 찾아떠나는 그림책 여행' 시작!

대전시가 8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신청기관에 파견하는 '그림책을 통한 나다움을 찾아가는 첫 여행'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생애주기를 고려한 양성평등 교육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책을 통한 평등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 성인지정책담당관과 여성가족원, 한밭도서관이 같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형성되기 전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해하기 쉬운 그림책으로 일상에서의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을 해소하고 '나다움'에 대해 생각하고자 시작하게 되었다. 여성가족원 대전미래여성 아카데미에서 양성평등큐레이터 양성 기초와 심화과정을 이수한 강사들이 자체 학습모임을 통해 긴 시간 수업을 준비해 왔다. 큐레이터의 오랜 기다림과 열정으로 첫발을 딛고 시작한 그림책 평등 여행은 1시간의 수업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아이들이 높은 집중도와 관심 표현을 보였고, 강사와 수요기관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 앞으로도 일상에의 자연스런 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할 예정이며, 여성가족원 양성평등 큐레이터 양성과정에 독서지도사, 보육교사, 젠더활동가 등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2 「성평등 보이스단」 오플¹ 세대 남성들을 위한 성평등 공감과 실천의 장 마련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또한 성평등 공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성평등 보이스단은 '성평등에 대한 목소리(Voice)를 내다'와 '성평등에 앞장서는 남성들(Boys)'이라는 중의적 의미로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에 성평등 문제를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 나누고 고민해 성평등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남성들의 모임이다.

대전시는 50대~60대 남성들이 가족을 돌보고 사회를 돌아보면서 가부장적인 부담을 내려놓고 균형 잡힌 노후를 살아갈 역량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역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중·장년 남성 17명으로 성평등 보이스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가족 문제를 토론하며 대안적 모델을 만들어가는 성찰적 형태의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성평등에 대한 남성의 관심과 역할을 제고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소통과 공감의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는 씨앗이 되기를 기대한다.

#3 중앙동 성매매집결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립니다.

대전시에서는 일제 강점기부터 100년 동안이나 여성 인권 유린 공간으로 사용된 중앙동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한다. 대전역 인근에 도시 재생뉴딜사업이 추진되면서 중앙동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폐쇄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호객행위 및 노후 건축물 등으로 인해 유동 인구가 적고 어두운 공간이었던 중앙동 성매매집결지를 탈바꿈하여 시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환원하는 것이 목표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서는 공간 변화와 종사자들의 탈성매매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대전시에서는 올해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 및 기관을 모아 TF팀을 만들었으며,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社会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9월 양성평등 주간에는 성매매집결지 걷기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중앙동 성매매집결지를 걸어보면서 심각성을 느끼는 행사도 개최하였다.

또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들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본격적인 성매매피해 여성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다만, 모든 성매매피해 여성이 아닌 '중앙동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 피해 여성'으로 확인된 사람에게만 지원하며 연령이 높은 중앙동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완전한 탈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된 중앙동 일대 성매매집결지 공간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도 시작되었으며, 연구 결과에 따라 중앙동 성매매집결지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1)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노년층이라는 뜻의 영문 'Old People with Active Life'의 앞 글자를 딴 신조어.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8년생을 지칭하기도 한다.



운동하는 여성들

단호한 언니들의 디스크, 단디

이유진 |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 편집위원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넓은 운동장이 있었지만,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한 기억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체육 수업은 강당에서 했고, 중학교 운동장은 잔디를 많이 밟으면 잔디가 죽는다는 이유로 늘 운동장 가장자리에 끈으로 된 울타리가 있었다. 고등학교 운동장은 가운데 잔디와 가장자리의 트랙으로 이루어져 체력검사를 위한 오래달리기나 점심·저녁 산책 외에는 쓰지 않았다. 강당이 꽤 넓기는 했지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한정적이라 주로 피구를 했고 가끔은 배드민턴을 했다.

'단호한 언니들의 디스크'라는 의미의 '단디(DANDI)'는 대전의 비혼주의 여성들이 모여 얼티밋을 즐기는 모임이며, 2019년 10월 5일, 첫 번째 모임을 시작으로 '단디'는 2년 넘게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얼티밋이라는 팀 스포츠가 아직은 생소한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른다. '얼티밋 프리스비(Ultimate frisbee)'는 플라잉디스크를 이용하여 경기하는 팀 스포츠로, 디스크를 가지고 상대 팀 득점 구역으로 들어가면 득점한다. 상대방 골 지역에 들어가서 디스크를 잡으면 득점하고, 디스크를 든 사람은 이동할 수 없으며 10초 이내에 패스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팀원들이 고르게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선수 간에 신체 접촉이나 태클은 허용되지 않아 몸싸움이 적고, 심판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¹

'단디'모임은 준비운동, 패스 연습, 미니게임, 정식 게임, 마무리 운동 순으로 진행되며, 각자의 체력과 컨디션에 따라 참여가 자유롭고 경기 중 선수 교체도 요청할 수 있다. 본래 매주 토요일 정기모임이 있었으나, 작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정기모임은 잠시 쉬어가는 중이다. 비록 정기모임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지만, 여성들끼리 운동장에 모여 디스크를 주고받으며 마



¹ 스포츠북스 체육학연구회, 체육학사전



음껏 뛰는 즐거움을 그리워하는 팀원들이 많아 참여 희망자에 한해 한 달에 한번 정도 모임을 가지기도 한다.

생각해보면 나에게 운동은 늘 시선과의 싸움이었다. 머리가 형틀어지는지, 땀이 나는지, 가슴이 흔들리는 걸 누군가 보지는 않을지 신경을 쓰느라 운동을 즐겨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운동은 원래 땀이 나오고 머리가 형틀어지며 숨이 차도록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단디' 모임에선 그런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디스크를 던지고 있으면 이따금 운동장 옆 산책로를 지나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도 했지만, 처음에만 신경 쓰일 뿐 시간이 조금 지나자 누가 지나가든 말든 '단디' 팀원들과의 대화와 디스크를 던지는 광경에 빠져들었다. 정해진 칸 안에서 서로를 공으로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기가 끝날 때쯤엔 늘 상대 팀과 감정이 상하던 피구 경기에만 익숙했던 나에게 운동장을 숨이 차도록 뛰며 크게 웃고 소리치는 즐거움을 알고 실수해도 자책하지 말라며 서로를 북돋아 주는 '단디'가 새롭게 느껴졌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 주는 편안함이 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 페미니스트들이 모인 공간 등 그 자리에 있는 모두와 아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느껴지는 안정감. '단디'는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얼티밋이라는 팀 스포츠를 함께 하는 모임이다. 내가 '단디'에서 느꼈던 편안함은 거기에서 온 것 같다.

이 글을 읽은 누군가가 운동이 하고 싶어졌으면 좋겠다. 피구를 하다 옆반과 싸워도 다음 체육시간이 되면 또다시 피구를 하고 싶어 했던 건, 그때

“
운동장은 늘 남학생들의 차지였죠.
언제 우리가 운동장에서
달려볼 기회가 있었나요?
그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보세요.
운동을 못 해도 괜찮습니다.”
”

우리가 할 수 있는 팀 스포츠가 피구뿐이어서가 아닐까? 얼티밋도 좋고, 다른 운동이어도 좋다. 만약 얼티밋에 관심이 간다면, 단디 공식 인스타그램이 언제든 열려있다. 가입, 체험, 건의사항 등을 단디 공식 인스타그램(@dandi__official)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든 여성들이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일단 뛰어보면 안다. 나에게 이런 근육이 있었다는 걸, 숨이 차는 게 불쾌하지 않다는 걸.

“운동장은 늘 남학생들의 차지였죠. 언제 우리가 운동장에서 달려볼 기회가 있었나요? 그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보세요. 운동을 못 해도 괜찮습니다. 운동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입니다.” 단디 대표, 단호 ⓧ

대전 최초, 유일 여성 주짓수 이윤자관장

“운동이 주는 즐거움, 남성만의 것은 아니죠”

김순조 |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 편집위원



이윤자 관장은 대전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주짓수 관장이다. 9년 전, 주짓수를 처음 만날 때만 해도 조르고 꺾으며 상대를 제압하는 이 스포츠가 인생의 동반자가 될 줄은 몰랐다.

“9년 전 저는 탑댄서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제 탑댄스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좋은 소리를 만들고 싶었고, 체력을 기르기 위해 크로스핏 체육관을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조성민관장님의 주짓수 수업을 난생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남녀가 서로 뒤엉켜 승부를 거루는 모습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아 거부감부터 들더군요.”

그러나 어렸을 적부터 몸을 움직여 하는 운동이나 활동을 좋아하던 이 관장이 주짓수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몸을 부대끼며 동작 하나하나를 배워나가는 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배운 기술들을 열심히 익혀 상대가 남성이든, 힘이 더 좋은든, 체격이 크든 상관없이 연습한 기술이 시연될 때 느껴지는 쾌감이 무척 컸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관장의 꿈을 키운 것은, 이 관장은 드디어 2017년 서구 갈마동에도장을 열었다. 자신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도장을 꾸리게 되자 양성평등한 도장, 즐거운 도장을 모토로 편안하고 행복한 도장 환경을 만들어 나갔다.

“상대가 여자라고 살살하기 없기가 우리 도장 원칙입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죠. 상대가 봐주겠지하는 생각은 갖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으



갈마주짓수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37 동해빌딩

☏ 0507-1384-6800



“

상대가 여자라고
살살하기 없기가
우리 도장 원칙입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죠.
상대가 봄주겠지하는 생각은
갖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



갈마주짓수 이윤자관장



로 바라보는 분위기도 되도록 만들지 않도록 하고 있죠.”

즐거운 도장은 이 관장이 주짓수에 입문했을 때 도장에서 느꼈던 감정이었다. 즐거움이야말로 9년의 세월 동안 초보 입문자에서 관장으로 성장하기 까지 이 관장을 지탱해온 원동력이었다. 몸으로 하는 운동의 즐거움을 여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관장의 미션이기도 하다. 어렸을 적부터 스포츠를 좋아하는 엄마의 영향으로 다양한 운동을 즐기며 자란 이 관장은 누구보다도 몸을 움직이며 하는 운동의 즐거움을 잘 안다. 이 관장은 “말로만 놀던 여자아이들도 4개월만 도장에 다니면 몸으로 놀 줄 알게 된다”며 “운동을 좋아하게 만드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여성이 이끄는 도장이 드문 탓에 관장님이라고 하면 당연히 남성일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인한 에피소드도 많다. “도장을 다니는 여성분이 집에서 우리 관장님 우리 관장님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나 봐요. 옆에서 듣던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거리를 두라고 조언하시더래요. 그런 할머니한테 여자관장님이라고 했더니 놀라면서 웃으시더랍니다.”

코로나 이후 등산으로 체력 훈련을 하고 있는 이 관장은 두려움을 이기고 싶어 10시간 넘게 혼자 능선을 타면서 인생을 관조하는 힘을 기르고 있다고 밝힌다. 지역 유일한 주짓수 여성 관장으로서 여성들에게 스포츠는 어떤 특정 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윤자 관장. 파이팅!!

〈구경이〉, 여성 서사이면서 동시에 여성만의 서사가 아닌 연대

글·권순지(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 편집위원)

지난 10월 30일 첫 방영된 JTBC 토·일 드라마 〈구경이〉는 4년의 공백기를 깨고 작품으로 돌아온 배우 이영애의 복귀작이라는 점에서 방영 전부터 주목을 받았다. 방영 이후에는 배우 이영애와 '구경이' 캐릭터의 조합이 신선하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얻어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이 과연 배우 이영애인가, 라는 충격을 건져 올리게 하는 장면이 아무렇지 않게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컴퓨터 본체에서 바퀴벌레 무리가 발견될 정도의 비위생적인 집에 앉아 언제 갑았는지 모를 엉겨 붙은 머리를 산발하고는 게임을 하는 모습, 술만 보면 눈을 반짝이는 알코올 의존의 모습 등. '구경이'는 그간 대중이 소비해온 배우 이영애의 이미지를 연상하기 어려운 낯선 모양새로 등장한다. 그러한 이유로 대중에게 더 특별한 캐릭터로 의미화된다.

그런데 〈구경이〉에는 '구경이'만 등장하지 않는다. 전직 경찰이자 보험조사관으로 일하는 구경이(이영애)와 함께 극의 중추를 이루는 다른 한 여성, 케이(김혜준)가 있다. 또한 케이의 살인 행적을 함께 짚는 동료들도 존재한다. 여러 등장인물의 조합이 자아내는 메시지를 따라가다 보면 작품이 서술하고자 하는 의외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구경이〉를 평가하는 대다수의 외부 관점이 배우 '이영애에 의한' 구경이 캐릭터의 신선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 〈구경이〉가 여성 서사이면서 동시에 여성만의 서사가 아닌 연대로 확장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이 글은 기존 젠더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여성 일상의 장면과 그 여성과 주변 인물들 간의 호혜적 장면을 바탕으로 한다.

외부와 차단된 자신만의 공간에서 게임하는 중년 여성 구경이 출처: JTBC

이런 여성은 없었다

게임에서 이긴 뒤 흥분에 도취되어 있는 구경이(이영애)의 집에 누군가 들이닥친다. 구경이가 과거 경찰로 일할 당시 후배였고 현재는 보험조사팀 팀장으로 일하는 중인 나제희(곽선영), 그리고 제희와 함께 일하는 팀원 경수(조현철)이다. 까다로운 보험금 지급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용병으로 구경이를 투입시키기 위해 찾은 보험회사 직원들의 시야에 그간 볼 수 없던 낯선 여성이 들어온다. 그것은 그들 모두를 한꺼번에 보고 있는 대중들의 감각에도 익숙하지 않은 장면이다.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하는 여성, 오랜 시간 정돈되지 않았을 더러운 집과 산발한 머리, 그리고 손에서 놓지 않는 술… 이렇게 외부와 차단한 지 오래인 일상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들은 해당 여성인 40대 중년여성이라는 점에서 더 특수해진다.

그간 대중매체 속 중년여성은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 여성상'(현모양처, 가정주부 등 가정내 여성의 희생과 헌신)과 그렇지 않고 '욕망하는 여성상'(전문직 여성, 워킹맘 등 사회진출 여성의 고뇌)이라는 이분법적 틀에 의해 재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사회에 '순응하거나' 또는 '욕망하는' 중년여성의 모습은 가정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틀을 일정 부분 준수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 재현되었다. 그 나이쯤 되면 응당 지녀야 한다고 규정되는, 중년여성을 향한 보편적인 사회 통념에 의지한 결과물이었다.

〈구경이〉는 그 통념을 가볍게 깨뜨린다. 과거 사건에 의해 자신을 집 안에 가둔 40대 여성의 일상엔 가족도 없고 보통의 직장도 없고 일상적이라 여겨지는 생활의 흔적도 없다. 그저 '구경이'라는 여성이 존재할 뿐이다. 당사자의 태도는 대부분이 기대했을 예상과 다르게 떳떳하다. 후배 나제희에 의해 집 밖으로 나와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장면에서는 타 작품 속 여성까지 소환하게 만든다. 식당 주방에서 음식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탐욕스럽게 바라보고 음식이 나오기 전부터 생맥주를 단숨에 들이키는 구경이에겐 어떤 거리낌도 없는데, 여기엔 여타 작품에서 그려낸 '식탐 있는' 여성과는 다른 당당함이 있기 때문이다.



JTBC 구경이 단체포스터_출처 JTBC

“

자신을 집 안에 가둔
40대 여성의 일상엔
가족도 없고
보통의 직장도 없고
일상적이라 여겨지는
생활의 흔적도 없다.
그저 '구경이'라는 여성이
존재할 뿐이다.

”

예를 들어 〈식사를 합시다 2〉의 백수지(서현진)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살이 찔까 봄 걱정하고 자책 하던 모습 같은 것은 '구경이'에게 없다. 음식 앞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식욕을 보이는 대중매체 속 여성의 모습은 최근 시즌 2를 종영한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채송화(전미도)에게도 해당되는데, 그 역시 주로 함께 식사하는 남성 동료들 사이에서 조금씩은 눈치를 본다. 다만 극 중 유능한 의사라는 엘리트적 배경에 의해 채송화(전미도)의 왕성한 식욕은 거슬리는 문제가 되지 않고 용인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반해 구경이는 어떤가. 그는 과거 경찰 일을 하였다는 이력은 있지만, 엘리트 여성도 아니고 그 세대 많은 수의 여성처럼 가족주의에 포섭된 인물도 아니다. 결국 보험조사 일을 맡기로 하는 과정에서도 선택의 주체는 구경이 자신이다. 오히려 사회 주변부에 위치해 있는 이 여성은 흥미롭다고 여겨질 만큼 많은 면에서 당당하고 주체적이다.

젠더 질서의 전복, 그리고 연대

보험금 지급과 관계한 사건을 탐문 수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작품의 특성상 배역의 무게를 떠나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 그 중심에 있는 구경이(이영애), 그와 관계하는 주요 인물들은 작품 〈구경이〉가 채택한 기존 질서의 전복을 유의미하게 지탱한다. 구경이를 따라다니며 사건 해결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산타(백성철)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자신의 입 대신 핸드폰 음성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사람이다. 간병 일을 하다 마음이 힘들어져서 게임을 시작했고 그러다 구경이를 만났다. 구경이는 자신의 음성 대신 기계로 소통하는 산타를 단 한 번도 질책하지 않고 불편해하지도 않는다. 의심 많은 구경이에게 조용히 믿음을 주는 산타가 주로 하는 일은 사무실 '청소'와 주변 '돌봄'이다. 사무실 장면에서 산타의 양손에 들려 있는 것은 대부분 걸레와 세제이고, 현장에서 구경이가 탐문을 하는 동안에는 해당 상대가 더욱



구경이(이영애)를 찾아온 나제희(곽선영)와 경수(조현철) 보험사건 탐문 수사에 나선 구경이(이영애)와 조력자 산타(백성철)_출처 JTBC

마음을 터놓을 수 있도록 음료를 건네거나, 그 사람의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등의 일을 한다. 여기서 산타가 '남성'이라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보조적'이라 평가되는 일을 여성 아닌 남성이 둘째로 재현한 작품 〈구경이〉는 비슷한 맥락으로 또 다른 남성 돌봄 주체를 등장시킨다. 바로 싱글맘 나제희(곽선영)의 아빠다. 여타 작품에서 바쁜 딸 대신 손주를 돌보는 주체는 대부분 여성인 엄마였다는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극 중 나제희의 아빠가 꽤 능숙하게 어린 손녀와 놀아주는 장면은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장면이다. 보통 '여성의 일'이라 일반화되어 온 영역이 남성에 의해 실천되고 유지되는 보기 드문 장면을 통해 작품은 말한다.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다고. 그리고 이렇게 연대할 수도 있다고 말이다.

작품 속 연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도 확장한다. 열띤 게임이 끝난 어느 밤, 구경이의 게임 동지 중 한 청년 남성은 "이젠 죽어야겠다", "살 이유가 없다"는 말을 공허히 내뱉는다. 놀란 구경이는 아이디를 추적하여 청년의 위치를 찾아낸다. 폭력을 일삼는 아빠를 피해 집을 나간 엄마, 그런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어 돈을 벌려다 도박으로 빚만 3억이 된 청년이다. 아예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를 마지막으로 생을 끝내려는 청년의 집문을 두드리는 존재는 구경이다. "너 없으면 우리 게임 정찰은 누가 하나"며 청년이 살아야 할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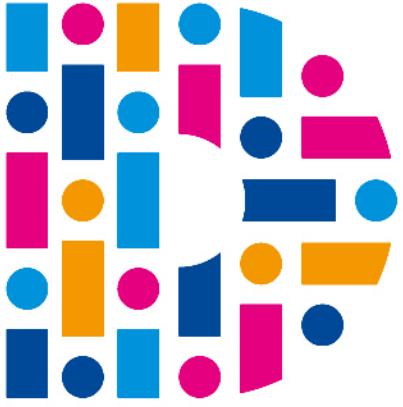
를 지극히 가볍게 던지는 구경이의 묵직한 진심에 청년은 다시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만들어낸다. 게임을 매개로 한 가상세계 속 연대가 현실로 이어져 죽음에 대한 의지를 삶의 의지로 전환해 낸 것이다.

한편, 현 사회의 비정상적인 부류라 상정되는 두 존재의 연대가 살인자 케이(김혜준)의 외로운 일상과 맞부딪히는 플롯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은 이후의 또 다른 연대가 가능하리라 상상하게 만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아기 취급하는 이모 말고는 아무도 없는 케이가 일삼는 살인 행위의 대상은 '죽여도 마땅한 이들'이다. 이것은 의심은 많지만 죽어도 괜찮은 사람은 없다고 믿는 모순된 의심러 구경이와, 이와 다른 케이가 대치하는 지점임과 동시에 새로운 연대로 도약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작품의 첫 화가 시작하던 장면의 연결을 떠올리게 된다. 구경이와 케이, 두 여성의 각기 다른 상황이 연결된 장면에서 어둠은 공통된 배경이었다. 각자의 어둠은 쫓고 쫓기는 관계를 통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외로운 케이는 고립을 벗고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과연 살인을 멈출 수 있게 될까. 할 수 있는 것은 추측뿐이지만 더 긍정적인 쪽으로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다. 흥미진진한 탐정수사극이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연대의 서사로 확장될 수 있기를. 아직 남아 있는 구경이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W](#)

살인을 계획중인 케이(김혜준)_출처 JTBC



UCLG DAEJEON CONGRESS 2022

The logo consists of the letters 'UCLG' in a large blue sans-serif font. To its right is a graphic element composed of vertical bars in blue, orange, and pink, with small circles placed at various points along the bars.

전 세계 도시외교의 무대
대전에서 펼쳐집니다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Breaking through as One
2022. 10. 10. ~ 10. 14. 대전컨벤션센터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35242 대전광역시 서구둔산로 100